朝鮮日報
夕刊
十二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每月一回發行)
『女性』(上同)
『少年』(上同)

金鶴香油

我荒鷲群大空襲에 武漢三鎭死街化
悠悠, 軍事施設을粉碎

【〇〇基地十一日發同盟】十一日 久野少佐가 引率한 海軍航空隊〇〇機의 大編隊는 烈風이 猛烈한 武漢 三鎭上空을 뚤코 大攻擊을 敢行하엿다 이날漢口飛行場에는 五、六의 敵機를 본外에 邀擊하여오는 敵機나 逃走하는 機影이 업섯다 이는 二日의 我漢口大空襲으로 敵은六十餘機나되는 全勢力의 三分의二가 殲滅된 事實의 一證左로 보인다 我大空襲部隊는 漢口飛行場 攻擊에 繼續하야 機翼을 連하야 武昌上空으로 殺到 構築中의 敵陣地 蛇山防空砲台를 徹底이粉碎하고 다시 漢陽上空에 이르러 亦是 敵防禦陣地 龜山의 防空砲台를 爆擊、徹底的 大損害를 준後 編隊로써 武漢三鎭上空을 旋回하야 悠悠히 歸還하엿다 이날 軍事施設及防禦陣地砲台에 投下된 爆彈은 實로 〇〇發로 그確實한 命中과 또한 事變勃發以來의 大量爆彈投下에 武漢三鎭은 沈默되여 斷末魔의 死相을 呈하엿다

天皇、皇后兩陛下 今日宮城에還幸啓

【東京電話同盟】葉山御用邸에 御駐輦中이옵시던 天皇皇后兩陛下께옵서는 十二日 二週間만에 宮城에 還幸啓하옵섯다 天皇陛下께옵서는 龍顔이 御麗純白한 海軍軍裝을입으옵시고 百武侍從長御陪乘 皇后陛下께옵서는 御洋裝을하옵섯는데 竹屋女官長이 御陪乘 松平宮相 宇佐美武官長以下 側近等供奉裡에 御同列 略式自動車鹵簿로 午前十時四十五分 葉山御用邸 御出門 同十一時 逗子驛御發車의 宮廷列車로 東京에向하옵섯다 東京驛頭에는 惶恐하옵신吩咐에依하야 顯官의奉迎이업고 係官만 御警衛를하엿다 正午御召車는 第二宮에到着 다시 自動車를 타옵시고 天機와 御機嫌御麗하옵시게 御豫定마가리 宮城에還御하옵섯다

岩城機를 御親覽

【橫須賀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十一日惶恐하옵게도 橫須賀海軍航空廠에行幸하옵서 御親閱하옵섯는데 그지음 前番廣東空襲時에 機體에百三十八發의 敵彈을맞고 滿身創痍가되면서 武勳赫赫歸還한 岩城邦廣大尉의 彈丸機를 親히御覽하옵시고 案內하옵는 長谷川司令長官에게 岩城大尉는 어디잇느냐고 御下問하옵섯다고 承聞되어 愛機아페 直立奉迎한 岩城大尉는 분수에넘치는光榮에 기피感激恐懼하여다한다

現地兩軍代表會見
停戰實施三條項協定
十一日午後張鼓峰方面서

【東京電話同盟】陸軍省午前十時三十分發表 昨十一日午後八時頃 長大佐는 蘇軍軍團大將 介데른(極東方面軍參謀長)과 張鼓峰方面蘇軍陣地內에서 會見하고 如左한 要旨의協定을하엿다

一、日蘇兩軍은 現在線에서 軍備戰鬪行動을停止할것

二、兩軍間에잇는 屍體는 兩軍에서各其收容할것

三、兩軍의現在線은 十二日午正張鼓峰東方白里한집에서 다시確認協定할것

四、右三項은 其時文書로써交換할것

(介大將은 西班牙蘇軍事顧問인바 今年四月極東軍參謀長에任命된것이다 蘇軍에잇서서의 近代戰指導의 權威者로 가장 有能한者이다)

停戰實績에關한 타스通信發表

【莫斯科十一日發同盟】타스通信社는 重光、리트비노프會談을成立된 日蘇停戰協定其後 實績에關하야 十一日夜 左와如히發表하엿다

一九三八年八月十日 日蘇間에成立을본 協定効果에 依하야 하-산湖地方의 戰鬪行爲는 地方時間 十一日午後一時半停止되엿다 그리고 戰鬪行爲 停止後의 兩軍部隊의 位置를 決定하고 軍事代表者의 最初會見은 十一日저녁때 『자오세르나아』氏(張鼓峰南方)에서 行하엿다

停戰協定報道에 支那側落膽狀態

【香港十二日發同盟】滿蘇國境紛爭에關한 停戰協定成立의報는 香港外人方面으로부터는 好感을엇고잇서 十一日의 英字紙夕刊은 同盟莫斯科電報를 大大的으로揭載、日蘇兩國間의危機가 解消되엿다고하는데 一方支那紙는 意外의事實에 놀래고잇는모양으로 設令一時的으로 停戰協定이成立되엿다고하드래도 日蘇兩國間에는 根本的利害衝突이 남어잇는때문에 今後도 開戰空氣가全혀一掃되엿다고는 말하기어려운것이라고 아라꺼워한다 漢口方面의反響은 適確하게는 報道되여잇지안코나 唯一의期待를갓게하든 莫斯科政府도 미들수업다는생각을가지고잇서 支那人의落膽狀態는 想像키에어렵지안타

停戰協定成立 紐育消息通歡迎

【紐育十一日發同盟】日蘇停戰協定成立에 關하야 紐育의 消息通은 一時的이나마 極東에서의 大戰爭勃發의 可能性이 除去되고 또歐洲의 勢力均衡에 속크를주지안코 끗낫다하야 歡迎하고잇다 그리고 如何히 停戰의 精神을 實行하여가는자 前途는 아직 樂觀을 不許한다는 愼重한 態度를보이고잇다 一方 蘇聯이 今回의 事件을 惹起한意圖或은 日蘇兩軍의 動向等에對하야는 依然히 各紙上에 論評이 揭載되지안햇다

日蘇停戰協定 伊太利도大歡迎

【羅馬十一日發同盟】伊太利各紙는 十一日朝刊에 一齊히日蘇停戰協定成立을 大大的으로 報道하야 이를歡迎하엿다 同協定에 關하야 伊官邊有力者의 意見을 드르면 如左하다

日蘇兩國이 停戰協定에 到達한것은 極東事情을爲하야참으로 慶賀할일이다 蘇聯이今回로 挑戰的行爲를 取한것은 큐시코프大將脫出事件을 內政的으로隱蔽하기爲함으로서 日本軍의沈着且毅然한 態度로말미아마 當初의計畫이全面的으로失敗한것이다 亂滿工作의 深刻化와 歐洲政情不安은 莫斯科政府로하여금 極東에서戰爭할勇氣를 갓지못하게한다 蘇聯今回失敗는 蔣介石에게 蘇聯을미들수업다는 失望感을주엇스며 日本은蘇聯의 本心을알機會를어든셈으로 事件結果日本은 도리어利益을보앗다고할것이다

"停戰協定成立은 日本軍隱忍自重의 膳物" 로이렐通信記者談

【雄基에서十一日同盟特派員發】〇〇에滯在하야 蘇聯空陸兩軍의不法한暴虐相을 連日觀察하고잇든 外國新聞通信社特派記者團一行에게 十一日發表된 停戰協定의成立報道를알리자 最年長者인 로이렐通信社도무르特派員은 代表格으로 欣然히 다음가티말하엿다

停戰協定이 成立된것은 매우기뿐일이다 이는單只極東平和를爲해서뿐만아니라 世界平和를爲해서기뿐것이다 이協定을成立케한 가장큰原因은 全혀 日本軍의 隱忍自重의賜物이다 이隱忍自重의方針을 嚴守하는 前線日本軍의 軍規遵奉이 徹底하엿든때문인것을如實히表示하고잇다 事件의完全한解決은 今後의 外交交涉結果를 기다려야할것이므로 只今이자리에서 豫言할수는업는것이지만 적어도 나는今回事件이 兩國間의外交折衝에依해서 完全히解決되며 乃至는日蘇間의 諸懸案을 外交交涉에依해서 解決케되는動因이될것을 切望하야마지안는바이어다

爆音砲聲은끄치고 沈默이繼續될뿐
颱風一過後의慶興一帶

【〇〇〇十一日古津同盟 特派員發】停戰協定이成立된 十一日午正에는 砲聲이全혀終熄되엿스며 蘇聯機의 爆音도 들리지안햇다 午後三時半頃부터 쏘더진 驟雨는 지난 三十一日以來의 砲煙을 깨끗하게 씻서버렷다 戰士心中에 平和와慰安을 가저다준비엿다 午後六時半비가 개이기를기다려서 國境線을 視察코저 記者는 阿吾地로부터 自動車를몰아 모처 慶興을 들엇다 途中現地사람들에게 『停戰協定이成立되엿다오』하고 알려주즉 아래입술을 물고잇다가 『그럿소』하고 軍히대당해버린다 數人의憲兵이 사람업는 거리를 巡回하고잇슬뿐이다 거리는 八日三十數臺의 敵機가三十分間이나 掃射爆彈의 비를퍼부어 그彈痕도 그대로잇서 數日前까지 內外記者團이모혀 갑작이活氣띄고잇든 當時의 慶興과는 딴판이다

右便을바라보즉 어두어오는 하늘에 儼然히 서잇는 滿領水流峰頂上에도 오늘은 砲煙을 볼수업스며 山影을 흐르는 豆滿江水는 한갈래 布木을 너른듯이 하다 물줄기를 따라 멀리안개에싸인 張鼓峰과 沙草峰山嶺을 遠望할때 萬感이 가슴에복바처 不知中눈물이고엿섯다 敵의 集中砲擊에 山形이 變할지언정 我勇士는 隱忍自重, 國境線을 能히 確保하엿든것이다 一哩의 國境은 一千哩의 國境의 一部이다 一寸의 土地라도 我國領을 夷敵에게 讓步치안흔 그氣魄은 後日 千鈞의 重味를 發揮할날이 어올것이다 記者는 다시 퍼붓는 소낙비를 마즈며 至今에 다다른 慶興으로도라간 뫼뿌리들지 가리웟든『갈곳라지』도 인제는 말끔이 거더버린 自動車를타고 非夢似夢中에 阿吾地宿舍로도라왓다

上海手榴彈騷動
八·一三記念日압두고

【上海十二日發同盟】支那事變勃發의八月十三日 一周年記念을압두고上海全市는 中戒嚴狀態에잇는데 十三日早朝 俄然工部局警察及 義勇隊 各國警備隊總動員의嚴重한 警戒를뚤코 各處에手榴彈投擲事件이 發生되여 市民을恐怖에 陷入케하엿다 犯人은 모두손빨리 逃亡하엿는데 事件은 다 日本人을 目標한것으로 我軍警當局은 嚴重그推移를監視하고잇다

一、午前六時西部로向하는日華紡績에手榴彈을投擲한때는 마츰職工交替時間이여서 附近一帶는 混亂을 몰하고잇슨때이므로支那人職工二名卽死 三名이重輕傷을입엇다

二、午前五時五十五分頃 愚園路百五十二의 工部局 警察日本人隊官舍에 向하야 道路上으로부터 手榴彈을 投擲한바同彈은 中庭에서 炸裂한때문에 多幸히 被害는업섯다

三、午前五時半頃 虞門路六百五十二號 土木建築請負業 米澤洋行事務所에 向하야 手榴彈二個를投下 事務所에서 炸裂되여 窓硝子를 破壞하엿스나 人命에는 損害가업섯다

朝鮮避難農民 今日二百名歸還

【雄基十二日同盟特派員發】지난 一日 蘇聯機의 越境空襲以來避難中이든 灘頭五家子、洋館坪等 朝鮮農民家族의 一部約二百名은 警察官護衛下에 十二日 夕頃부터 그리운自己집으로向하야 歸宅을 開始하엿다 一方危險區域을爲하야 往復運轉을하고잇든 雄尙阿吾地間列車도 日蘇兩軍戰鬪停止에依하야 兩三日中으로 運行을開始할려이다

時事解說

駐蘇支那大使 陳友仁任命說

香港으로부터온 支那側의 情報에依하면 缺員中에잇는駐蘇大使後任을陳友仁으로決定하야 陳은 오래동안 蟄居地이든 香港을出發하야 近近漢口로 向할려이라고傳한다 漢口決戰을압두고 唯一한 血路를 蘇聯의援助에 求하고잇는 國府가 今番陳을 駐蘇大使를 任命한다는點은 注目을 끄는바다

陳은 廣東省人으로 一八七八年에 南米英領 트리니다드島에서 出生하야 英國에서 敎育을바더辯護士가되엿고 一九一二年 北京政府法律顧問으로 잇다가 一時는 新聞界에서도 活躍하엿고 一九一七年에 上海로와서 孫文의 傘下에投하야 上海까제三를發行하고 一九一八年은 廣東政府一員으로渡米하엿다가 翌年에는 巴里講和會議서 廣東政府代表로 活躍하엿고 그後北京서 玉祥의 援助로 民黨을 發行하다가 孫死亡을 豫로 投獄까지되엿고 一九二六年은 國民黨第二次中央執行委員으로選任되어 廣東國民政府의 外交部長이되엿고 國民軍의 武漢征伐後는 武漢政府外交部長이되여 當時는 共產黨支持를바더 革命外交에 일홈을 떨치다가 國共分裂로 武漢政府가 南京政府와 合體되자 職을辭하고 宋慶齡과함께 莫斯科로가서 滯在하다가 一九三一年 歸國하야 孫科와함께 廣東派의 南京離反運動에 略關하면서 廣東國民政府外交部長으로 在任中 渡日한적도잇섯다 그後 南京과廣東와 妥協成立으로 다시 國民政府로 歸復하엿다가 一九三二年宋科를 따라 辭하고 一九三四年에는 福建革命에 加擔하엿다가 失敗後 一時渡佛하엿다가 以來香港에 蟄居케되엿는바 漢口陷落과함께 蘇支關係가 新階段으로 드러갈라는 此際에 한때赤色武漢政府의 外交陣에서 活躍하든 陳을新駐蘇大使府任째의 後任으로 起用하는것은 蘇支關係의緊化에 一層拍車를 加코저하는것으로 注目할바이다。

(寫眞은陳友仁)

蘇聯投降兵二名과 外國記者團과의一問一答

【〇〇九日發同盟】滿蘇國境紛爭現地에잇는 外國新聞記者團은 蘇軍陣地로부터 我軍에게 投降하여온 兵二名과 八日深更現地某所에서 會見하고 左와如한問答을하엿다

問 蘇聯은 日本과戰爭할려는가

答 赤軍은自國領을 奪回하기爲하야 戰爭하는것이다라고 上官은 말하고잇다 그러나 側컨대 戰車隊가 危險에陷한境遇를 援護하기爲하야 機關銃隊에게 求하엿스나 機關銃隊는 모르는척하고잇는形便이여서 眞心으로부터 祖國을爲하야 戰爭할마음은업다

問 蘇聯은 囚人을最前線에내세웟다고하는데 事實인가

答 張鼓峰戰線에는 多少는섞겨잇섯스나 全部囚人만은아니다

問 다른戰友도 逃亡하고시퍼하는가

答 나는다른戰友에關해서는 알수업다 그러나우리兄弟도 戰線에나와잇스나 그들도機會가잇스면 脫走코저하고잇다

問 日本軍과戰鬪한때의 感想은어떠냐

答 若干의指揮官은 前線으로부터 몸을감추고잇섯다 一同前線部隊에對하야 블류헬元帥로부터 軍紀를振作케하라는嚴命이잇슨때에는 緊張하엿섯스나 其後다시士氣가 弛緩되엿다

問 中堅士官의 戰鬪意識은어떠한가

答 大體로콤뮤니스트、콤소몰은良好하다 그것도 多種多樣해서 몬저 表面은좋나나 裏面은非常히 日本軍을 두려워한다

問 下級士官들은 잘兵士들을 돌보아주는가

答 靑年下級士官들은 兵士들에게 겨워야할터인데 實際는 그反對로 服裝、食事其他여러가지點으로보아 苛酷하다

問 蘇軍은 어디까지 張鼓峰을奪取코저하는가 그리고 事實可能타고생각하는가

答 그意思는잇서도 實行力은업다는것을 切實히느겻다

問 赤軍은日本軍과 참으로大規模의戰爭을 하고저생각하고잇는가

答 想像치도못하고잇다

問 어째그런가

答 自己의弱點을 알고잇는때문이다 例컨데 어느戰車隊의 大隊長이 日本軍에게 投降코저하엿스나 未然에 發覺되여銃殺된것을 들엇다

問 戰車와部下와함께 投降코저하엿든것인가

答 그러타

問 어떠케 그것을알엇느냐

答 前線兵士에게서들엇다 또機銃中隊長이 戰鬪中에 發射命令을하지안헛는바 部下의下士官이 이놈은 트로츠키派로구나고 高喊을지르며 發射한 事件도 들엇다 或은보리트-뷰-로(政治局)의 某中尉가어느 大隊로와서 自己自身機關銃을 操縱하면서 얼마동안은 日本軍을 向하야 發射하고잇섯스나 突然銃口를自國軍에게 돌려대고 多數의兵士를 銃殺하엿다는것도 들엇다

問 兵士가 銃殺되는일은 平時에도 잇는가

答 一般으로는 全然업다고할수업다 兵士들間의 議論으로써 알뿐이다

問 現在蘇軍의 前線兵力은 어떤程度냐

答 四個師團程度다

善後策檢討次 重光·리兩氏再會見

【莫斯科十一日發同盟】張鼓峰事件을圍繞한 日蘇兩國間의 危機는 十日第三次重光、리트비노프會見에依하야 一旦回避되엿는데 十一日타스通信社發表에依하면 重光、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은停戰協定成立에 繼續하야 今後의善後處置를 檢討코저 八月十二日正午에 다시會見하기로되엿다 (寫眞은 重光大使)

武漢勞働者에 武裝을遂命令

【上海十二日發同盟】漢口着電에依하면 武漢三鎭의勞働者一般民衆의 武裝計畫을決定한 漢口衛戍司令部에서는 我軍의漢口攻略이 着着進展되고잇슴에狼狽하야 드디여 十二日 男子勞働者五百名、女子勞働者二百名을選擇 武漢防衛를 爲하야 銃을들라는命令을發하엿다 이것은 第一次勇團으로서 이外에다시 工場勞働者、人力車夫까지 武裝시키려하고잇다 그리고 武漢三鎭의監獄을 一齊히開放하야 囚人에게武器를주어 防衛一線에 세우고저 準備를進行하는것으로 此等民衆動員은 武漢死守를 絶叫하야 國民政府를이끌고잇는共產黨이 가장上手하는바로 民衆武裝戰術은 着着實行되고잇다 그리고 武漢難民의奧地에의 避難은 漢口官民이 避難할 方法이업는形便으로 軍事當局은 武漢에잇는 日本人財產을沒收 이를賣却한金을 此等難民에게 分與한다는 傳單을뿌치어 市民의避難을도아주고잇다

中央軍放棄하면 共產軍이漢口防衛
國共間軋轢은共軍主張대로解決
第八路軍의一將校談

【香港十一日發同盟】武漢防衛를圍繞하고 國民政府와 共產軍과의 軋轢이 傳하여지는 此際에 十日夜廣東에 到着한 共產第八路軍의 一將校는 目下의 共產軍內關係狀態에 對하야 如左한興味잇는談話를 發表하엿다

國防에關한 國民政府와 共產軍과의 軋轢은 共產軍의 主張대로 解決되엿다 中央軍이 漢口防備를 放棄하고 西南에 撤退하면 八路軍單獨으로라도 이防衛에 當한다 그點은 輿論이我等을支持하여준다 我等은南潯鐵道를 第一防禦陣地로하고이에 精銳兵力을 集中시킨다 萬若長沙가 日本軍에게陷落되면 廣東은 危險에빠진다 我等은 將政權이 如何한 方向으로 進出하드라도 抗日으로까지 繼續할 覺悟이다 廣東의 共產黨이 蘇聯과의 同盟을云云하면서 英國과 握手하엿다는報道는 全혀日本側의 데마에不過하다 目下廣東에는 第八路軍의 代表者를 常駐시키고共產黨將領葉挺이 廣東에서 上海方面의 게릴라戰을指導하고잇다

對支根本方針
今日閣議報告後
五相會議서最後決定

【東京電話同盟】五相會議는 지난 六月十七日의 第一回會議以來回數를 거듭하기 前後十五回 近衛首相을 中心으로 事變處理에 對한 軍事外交及 財政政策全般에 亘하야 帝國政府의 最高方針에 關하야 懇談的으로 隔意업는 意見을 交換하여왓는데 漢口攻略의 進展에 따르는 第三國의 動向及 國府內部의 動搖에 鑑하야 爲先漢口攻略을 中心으로한 對支方策의 根本的政策에 關하야 討議를 進行한結果 將來發生할것으로 豫想되는 모든境遇의 想定에 基하야 結論을 엇게되엿스므로 九日定例閣議에서 그一部를 報告諒解를 求한 宇垣外相은 다시 十二日定例閣議에서 繼續五相會議의 決定을 報告諒解를 求하야 閣僚의 質疑로 時間不定이엇는바 同日閣議로서 當面의對支根本方針에關한 報告를 마추고 閣議直後의 定例五相會議에서 漢口攻略을 中心으로하는 當面의 外交方針을 決定、이決定에 基하야 今後모든 具體的境遇에 對處키로되엿다 五相會議는 對支方針一段落後는 이와關聯되는 懸案의 中央機關問題等이 決定되면 大體로 對支外交方針의 討議를 마추게되므로 다음에는 就後經濟政策을 中心으로하는 各般의 社會政策及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의 再檢討等國內對策을 討議할터이다 (寫眞은 宇垣外相)

產金具體策確立次
金增產協議會設置

【東京電話同盟】金增產에 關하야 商工省에서는 既히金增產五個年計畫을 樹立하야 昭和十七年度에 內地五十五噸 朝鮮七十五噸의 金增產을 確保코저 諸般의助成施設을講究하야 鋭意計畫達成에 努力中인데 最近에이르러 資材不足、勞働力不足等의 理由로迅速히現實에 卽應할具體的 增產方策確立을 必要로하게되엿스므로 關係各廳係官及民間主要當業者로 構成된金增產協議會를 設置키로 되엿다 이리하야 今後는 同協議會에 諮問하야 設備改良擴張命令을 發하는等金增產에 必要한施設을講究할터이다

停戰協定實行을 타스通信이報道

【莫斯科十一日發同盟】日蘇停戰協定成立報道는 分明히 蘇聯側을 거북게하야 十一日의莫斯科各紙는 第一面에 協定成立의 타스發表를 揭載하엿다 論評은一般으로 하지안하엿스나 타스通信社는十一日하산 湖附近의 日蘇兩軍은 完全히 停戰協定을 實行한것을 發表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十二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四十分 首相官邸에서 開會 먼저 永井遞相으로부터 海運界의 現況에 關하야簡單한 報告가잇슨後 靑木企畫院次長으로부터 北中支의 電氣事業現狀에 關하야 詳細報告가잇섯고 板垣陸相으로부터 張鼓峰事件의 停戰協定成立顚末을 宇垣外相으로부터 莫斯科에서의重光、리트비노프 第三次會談經過를 各各報告 同十一時 五十分散會하엿다

谷本少將東京에

【新京十二日發同盟】練習艦隊司令官에榮轉된 谷本少將은 十二日午前十一時 新京發列車로 官民多數의歡送을바드며 東上의途에올랏다

辭令

囑託技手(本局製造) 松元 茂

任朝鮮總督府專賣局副事務官 敍高等官七等 七級俸下賜 技手(京城義州通工場長) 宮崎 開吉

任朝鮮總督府專賣局技師 敍高等官七等 十一級俸下賜 副事務官 松元 茂

命專賣局製造課阿片係長 技師 宮崎 開吉

命京城地方專賣局義州通工場長 技師 唐澤 信一

免阿片係長兼務 囑兼技手(本局製造) 會田 一雄

命印刷工場主任 屬(京城製造) 中村 惟義

命專賣局製造課勤務 屬(大邱製造) 池田 滋

命京城地方專賣局在勤 技手(平壤製造) 廣田 輯章

命大邱地方專賣局在勤 技手兼屬(平壤西平壤工場長) 小林慶一郎

命平壤地方專賣局在勤

人面鋒

◇張鼓峰事件 十日로써 日蘇間에 停戰協定 成立。

◇이로써 騷亂는 朝滿蘇國境一帶 安穩。

◇發端에서 七月十一日이니 滿一個月만에 解決된셈。

◇濟州島에 根據를 둔 無極大道敎一派 昨日送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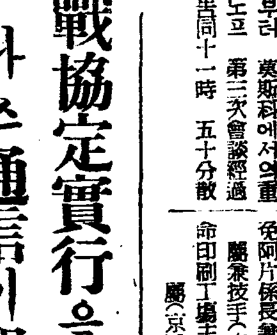
◇惑世誣民하는 이런類를랑 假借업시 嚴罰함이 可。

◇當局에선 音盤의 準備工作으로 失業者를 調査한다고。

◇調査에 끄치지 말고 速速救濟策을 세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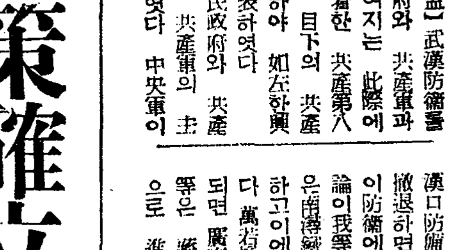
◇旱魃은 갈수록 益甚。 이따금터지는 소나비도 紅爐點雪에不適。

◇하늘은 어떠케 生命水를 주시지안흐려나。


カゴメケチャップ
最上の品質・最大の売行

文房具・事務用品
豐富大都賣 在庫豊富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齋洞四番 電光三七〇番 振替京城16121番
目錄要三錢切手

諸鳥獸高價買入
山口屋小動物園
東京下谷入谷三九〇

高級英式旋盤 特大八呎型船

御希望ノ節ハ御照會乞フ 出精値段御見積申上候
賣却案內 在庫豐富
白石商會 京城府古市町三四(電車通リ) 電話本局長3861·7250

時計 スイツル 貿易商會

博士創製한 털나는약
털나는藥 후미나인
禿頭病 若禿 薄毛 脫毛
定價 一圓六十錢、九十錢、一圓五十錢、三圓、五圓五十錢
發賣元 東京市芝田村町 東京藥院

劇團 青春座 歸京第一公演
八月十三日밤부터
△上演名劇▽
林仙圭作 별만이아는秘密 三幕五場
멤버(가나다順)
별만이아는秘密은 이悲劇을보라 悲劇은반드시罪惡의副產物이아니다! 도리혀이러한人生悲劇속에서우리는眞과善을發見할때가만타! 참다운演劇은우리들의精神의糧食의寶庫인것을 率直히아르켜주는이演劇이야말로오래인沈默끗헤내여노흔林仙圭君의快作이다。 日復日强化되는靑春座陣容의全力量을傾注하야猛打하는이『별든』은반드시劇界의『홈으런』이될것이다! 여기에南宮春君의新作喜劇까지를上演하게되여錦上添花의盛事이라하겟다!
東洋劇場

劇團豪華船
△北鮮巡演月日及場所
八月十三日…興南…昭和館
十四 十五 十六 十七日…咸興…(黃金町)假設劇場
十八日…高原…興樂館
十九 二十 二十一日…長箭…長箭劇場

今十二日夜뿐
朝鮮聲樂硏究會公演
△上演名劇金容承脚色
唱劇 雍固執(옹고집) 六幕
方今上演中大喝采를밧는聲硏會의公演도袞惜하사今夜(十二日夜)가마지막이외다! 單一夜인今夜를부듸遺憾업지마르소서
東洋劇場

醫師、學生、技術者 朝鮮도登錄準備完了

內地의勅令公布와同時에追隨토록 豫算關係를折衷中

전시체제하의 인적자원(人的資源)총동원을 단행하기위하야 의사, 약제사, 간호부등 의료방면 기술자 기술노동자기타 기술직공등 공업방면의기술자 대학, 전문학교, 실업학교등의 졸업생등과학기술자를 정부에서 등록하기로된것은 이미주지의 사실이어니와 후생성(厚生省), 기획원(企畫院)에서 이에대한 구체안을 성안한결과 의사, 약제사, 간호부등의료기술자등록제를 먼저실시하기로 결정하얏스므로 불일간칙령으로써 발포실시하기로되엇다 그리고 또이에계속하야 기술노동자와학생등록도속속실시하기로되엇는데 이에대한조선총독부의방침은 어떠한가?

의사, 약제사, 간호부 등의료방면의 기술자는 총독부 위생과에서 등록사무를 취급하기로되어 내지의칙령이 발표실시되는대로 조선도곳실시할준비에착수할터인데 이에따르는문제이므로 이예산을 예비금(豫備金)에서 지출하게될는지 혹은명년도예산에 계상하야실시할는지 이것만은 아직확정되지안엇다 만일 명년도예산에 계상실시한다면 상당히 천연될모양이고 예비금에서지출한다면 곳실시할수가 잇슬것이다 이러므로 시국판계상 시급을요하는이문제에 예비금에서 지출실시하게될모양이다

衛生課川口技師談 이에대하야 총독부위생과 천구기사(川口技師)는말하되 의사, 약제사, 간호부등록은 시국판계상 시급을요하는 것이 그다음으로 기술노동자 기타 기술자는 [illegible] 조선도실시하는것은 틀림업는사실이다 그러나이것은 예산을요하는 문제이므로 [illegible] 예비금에서 지출하게될는지 또는 명년도예산에 계상하야 실시하게될는지 아직 알수업다 이예산문제를 절충하기위하야 세천(細川)국장이 방금 동경(東京)에 가잇스므로 [illegible]

竹內社會課長談 [illegible]

北鮮線復舊

十三日부터從來대로

수일전부터 불통중이던 북선선 아오지(阿吾地)라진(羅津)간 철도선 [illegible] 종래대로열차운전을 하기로 되엿다

名實相符의總動員

慶南、全南兩道聯盟結成式에參席했든 鹽原學務局長歸來感想談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은 결성이래 비약적 활약을계속하야 오는구월상순까지 전조선 각도연맹이 전부 결성되엇거니와 지난칠일에 경상남도(慶南) 동팔일에전라남도(全南)양도 연맹결성식에 임석하얏다가 도라온 총독부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이번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연맹결성식을 보고왓는데 실로성대하고 장엄하얏다 양도결성식이 모두오전칠시부터 개막하얏는데 시간이 그와가티일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엄수하야 양도모두정각까지 약이만명의 참석이잇섯는데 특히 드물게본사실은 각군、면장까지 전부출석한그것이다 이것은그도당국에서도 각각처음보는현상이엇다고한다

그리고 연맹의조직체계는도로부터 각부락까지 대개결성되어잇는데 부락연맹에는 반(班)과대(隊)를조직하야 모다근로보국(勤勞報國)에 출동하야 훌륭한성적을 올리고잇다 조직상황으로나 활동상황으로나 실로굉장한 비약적이다

勞働神聖을體得

夏期學生勤勞報國狀況講評

規模넓혀서恒久化

이번하기방학부터 처음으로전조선중등전문 또는 소학교까지 에 학교근로보국대(學校勤勞報國隊)를 조직하여가지고 학생들이 각공사장에 나아가서 땀을 흘리는 로동을하야서 비상시학생으로서 여실히 그본분을나타내게하고잇는데 총독부에서는 지난달 이십사일부터 학교근로보국대의 파견하야 각지방의 학교근로보국대의 작업상황을 시찰시기고 잇다 이제그시찰의보고를 종합하여보건대 생도들의 태도와기분은 매우 적절하고 발랄하야 신체를상하는사람도 별로업고 모두 예정공사를 완전히 끗마치는 [illegible]

[illegible]

北鮮鐵道貫獻

獻納된兩機

十八日命名式

[illegible]

"움지기는溫突"데뷰

어번엔장작자동차가나온다

木炭車보담도經濟的

목탄자동차의뒤를이어 어번에는 또 장작자동차가 나타나서 자동차라면 까솔린어시는 달리 지못하는것이줄로만알어오던 장안인사들사이에 새로운화제를제공하고잇다 — 구조와원리는 지극히 간단하야 사진에보드시 자체(車體)엽구리에다가 가마를걸고 흙사이 으로밧게 장작을때드시 면된다 장작불에서생기는 와사(瓦斯)로해서 차가움지기게되는 것으로 연료로는 솔나무도조코 아무것도조타 한가마에 한번에열세관까지 너흘수잇서 열세관이면 칠십키로를 달릴수 잇다고하니 장작한관으로 약십리씩 달리는 폭이된다 따라서 연료갑시 엄청나게 싸게먹어

까솔린의 사분지일 (六의 [illegible]) 거든 연료비라고한다 경제적으로 서는 훨씬유리하지만 결점으로는 무게가무거워지는것이 탈이지만 화물자동차라면 조금무거워지기는 하야 실상업는 [illegible] 자연 화물자동차에 만히 사용되게된다 내지에서는 벌써각처에 서 실용되지 엇는데 조선에는 어번이처음이여서 임의적인 경기도청에서 호시(曉矢)가된다 여러군데 도는데 아프로 적극장려할 방침이라고하니 여 [illegible] 장작자동차 우리 운수계(運輸界)의중차 아닌 가운데 [illegible] 다 (사진은 장작자동차)

無極大道敎의無極한罪相

大同世界를建設 後天五萬年의榮華

蓄妾과酒池肉林의豪奢로 敎主姜昇泰의耽色

【全南特派員鄭仁翼】 제주도(濟州島)일대를 중심으로 일천오백여명의 우매한남녀를 모아가지고 황당무계한 교리(敎理)를 따다가 드디어 제주경찰서에 검거된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일파의신자수백명이 조선의 현실과 [illegible]

[illegible]

漢拏山上의怪祈禱

誠意、斂金名目으로財物騙取

전기 무극대도교간부들은 제주도내에서 영산(靈山)으로 알고잇는 한라산(漢拏山)상봉에서 발광에제를지내며괴이한짓거리를 하는등가 [illegible]

發覺端緖

[illegible]

奉天虎列刺

繼續하야發生

십일일 만주국민생부보건사장(民生部保健司長)으로부터 온 보에의하면 봉천시내의호열자발생상황은 지난팔일에 동시황고둔(皇姑屯)에서 한명 [illegible]

黃、權組制覇

朝鮮軍의獨舞臺

【宇治山田電話同盟】 第三回伊勢神宮一般庭球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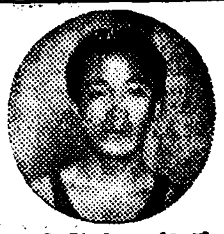
東洋拳鬪會 東京在學生對抗拳鬪戰

本社社長寄贈盃는어느陣頭에

興奮넘칠訓練院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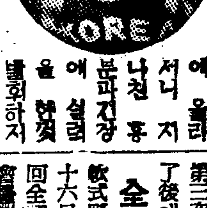
今夜 京城運動場

[illegible]



東亞主將 韓龍河君 談

"四對一로 우리가勝利"



東京主將 李奎煥君 談

"自信잇다"

[illegible]

中等野球對陣

仁商은天商과對峙

【大阪電話同盟】 二十四回全國中等優勝野球大會 [illegible]

全朝鮮軟式野球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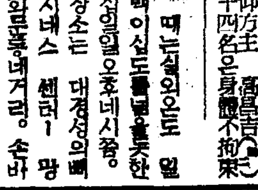
記錄

一萬六千餘枚

[illegible]

送局者姓名

[illegible]



色鉛筆

[illegible]

KONG-GO KONG-GO KONG-GO
神經痛・류마치스治療劑
ネウロジン (金剛)
本劑는 五%부로ー무마구네시움을主劑로하고 此에純葡萄糖을高張性으로配合한無色透明滅菌靜脈注射液이다
【適應症】 神經痛、류마치스、肩痺症、腰痛、神經衰弱、氣管支喘息、胃痙攣、妊娠阻惡等
【包裝】 一〇cc五管入 二〇cc五管入
各地藥店에서買入하실時는반드시『金剛製藥 네우로진』이라고指定下命하십시오萬若品切中이면直接本店으로用命하야주십시오
製造發賣元 金剛製藥所 京城府黃金町二ノ五七 電話本局③二三一・四九六・二七〇一

늑막염 可驚할根治藥! 乾濕性肋膜炎에百發百中 藥價十圓아모리重症이라도서도안나신분은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一二一九九番

本報叢島支局 本局三八八六

第三回 新京測量學院生徒募集 出願期 九月十日限 考査日 九月十四日 科目 平板關根高低測量記・製圖・實習・滿洲語 開學 九月十五日 規則請求要三錢郵票 新京朝日通十五番地 電話(3)二八四五番

京城中等學院 生徒募集 中等科、中等學校入學準備科。商科、簿記科 新學期開始 京城府林町八二番地(黃金座前)

中央體育研究所

巡查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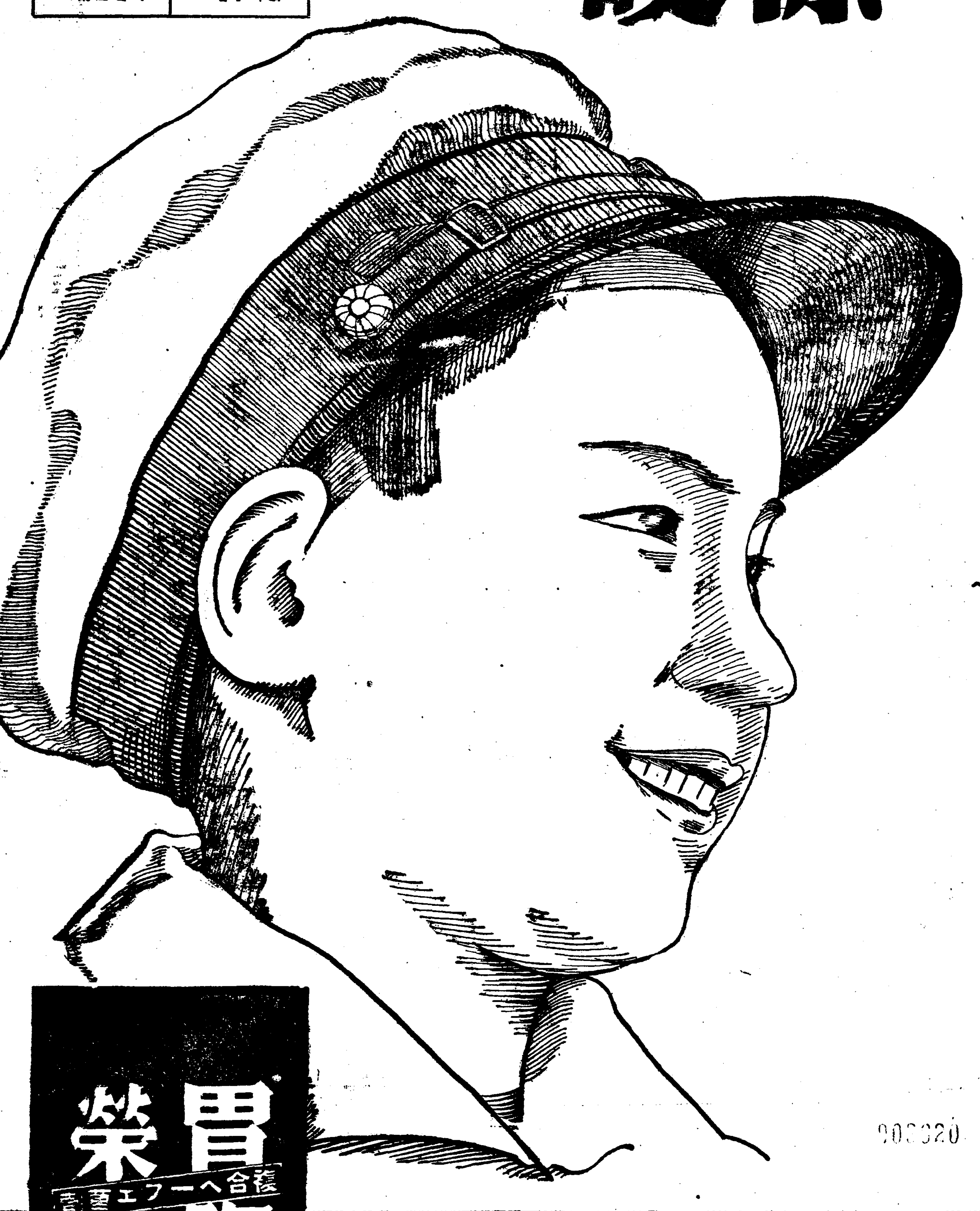
연주창 新發見 效力百中 『연주창특효약』 淸化丸 京城藥局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初くじ引九月一日 第三回、四回 貯蓄債券 賣價十圓十錢
割增金附

醫學博士 三浦民雄 三浦外科 內科 外科 肛門科 レントゲン科 入院病室完備

淸肺丸

애기들의 胃腸의 保護에



學校를爲해!

わかもと에부터잇는 掛圖引換券을 先生님께 드립시다 그것과引換으로 여러분의學校에 美麗한 掛圖가寄贈됩니다

酵母劑의革新

萬人幸福의 源泉인 最新의 醫病知識을 平易히 說明한 『酵母劑의革新』이라고 題한四六倍判의 리―풀렛은 營業書로 申込하는분께 無代急送합니다

장마가개면서 盛夏에걸처서 痢疾 赤痢 消化不良 食傷 急性腸 가다루와 이기들의 胃腸은危險합니다 寢冷치안토록 나쁜것을 먹지안토록 胃腸의保護도 必要하지마는 一步나아가서 多少의 不消化物 黴菌의 侵入에도 끔적도안는 胃腸의强化는 더욱더必要합니다 그러케함에는 消化劑、健胃劑 整腸劑等의 效果를綜合한우에 胃腸組織細胞의機能을 强케하는 作用어엿든錠劑わかもと」의 服用이第一입니다

もしもお腹をこはした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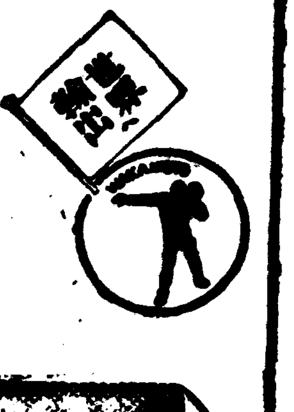
注意에注意를 거듭할지라도 어린애들이라 곳잘배탈이 나기쉽습니다 高熱 無力等의 徵候가보이거든 痢疾이나 그러치안으면 重症인것이니 곳醫療를받지 안으면안되는데 多少의腹痛、泄瀉等만이라도 單純한 急性腸가다루로알고 于先괴마자기름으로 한번腸의 內部를깨끗이 셋처내고 따뜻한 물며재로 배를따뜻하게하고 『錠劑わかもと』를 먹여보십시오 自然히腸의 機能이恢復되고 便도조아지며 食事도次第로 하게되야 모든症狀이輕快해집니다

萬若醫師의 加療를 바들때라도 한쪽으로이藥을 먹는것은 조금도害가엽슬뿐아니라 病의治療를 速하게하야 大端히좃습니다 特히重症의 腸疾患으로 恢復期에드러서 食事를 流動食으로부터 곳 普通食으로 차침박귈때等은 이藥을 먹어면消化와榮養의 吸收가 活潑케됩니다

食がすゝまないならば

더워지자면 普通사람도 口味가업서지는것인데 特히身體가 弱한애게는 一層더합니다 飮食을가려먹는 어는그것이더욱甚하야 榮養이自然低下해서 所謂夏瘦를 하게됩니다

그러한 애기들에게는 먼저무엇보다도 『錠劑わかもと』를 주어주십시요 이藥에는 胃腸의機能을 旺盛케하는 비타민複合體와 食慾素라고하는 호르몬性物質等이 잇는우에 身體全體의 細胞에힘을주는 成分이잇는故로 다만胃腸의 活働이强해지는 것뿐아니라 身體全體의 機能이튼튼히된 結果로서의 食慾이 旺盛해집니다 食物을가려머는 習慣도 自然업서지고 消化도조코 榮養의吸收도 노파지는故로 夏瘦의現象도 안보엡니다



胃腸 榮養

錠劑 わかもと

後合へ―フーエ酵素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三百錠 二十五日分 一圓六十錢

德用千錠入 五圓

計(錠劑前後의兒童에는六十日 前後에는三十日 前後에는二十日分)

獻開錠用 五十錢

東京市芝公園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振替東京一七〇〇番・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愛用者御優待 大懸賞當選發表

今春わかもと愛用家여러분께 報答키爲하야 企劃한大懸賞特賞은 去六月十五日末曾有의 盛況裡에締切 七月五日本社에서 在京新聞社員立會下에 嚴正한抽籤을 行한結果 三十七萬一千二百五十九人의 應募者中에서 在記여러분이當選되엿습니다 玆에更히 愛用家諸位께謝禮하나이다

○芳名에 敬稱省略하엿사오니 容赦해주십시요

四等以下는 樺太、北海道、朝鮮分만을 揭載他는省略

(賞品은 發表後一個月以內에 發送하겟나이다)

懸賞	課題

(イ) 胃腸〇養わかもと
右の文中の〇は何といふ字ですか

(ロ) お宅で御購讀の新聞雜誌の名

(イ)の正解「榮」

一等 寫眞機又ハ高級自轉車

小樽市緑町二丁目一九 小平燕子
秋田市楢山三枚橋二九 鈴木毅
[illegible]

二等 電氣時計又は置時計

[illegible]

三等 銘仙夜具地一疋、旅行兵兒帶の中、壽臺

[illegible]

四等 又はスプンセット

[illegible]

五等 硝子コップセット

[illegible]

六等 双眼鏡

[illegible]

七等 絹張洋傘

[illegible]

八等 旅行用品セット

[illegible]

九等 硯箱セット

[illegible]

十等 ズック鞄

[illegible]

十一等 電氣アイロン

[illegible]

十二等 フエルト草履

[illegible]

十三等 旅行用水筒

[illegible]

十四等 湯上り大タオル

[illegible]

十五等 懷中電燈

[illegible]

十六等 菓子器

[illegible]

十七等 石鹼牛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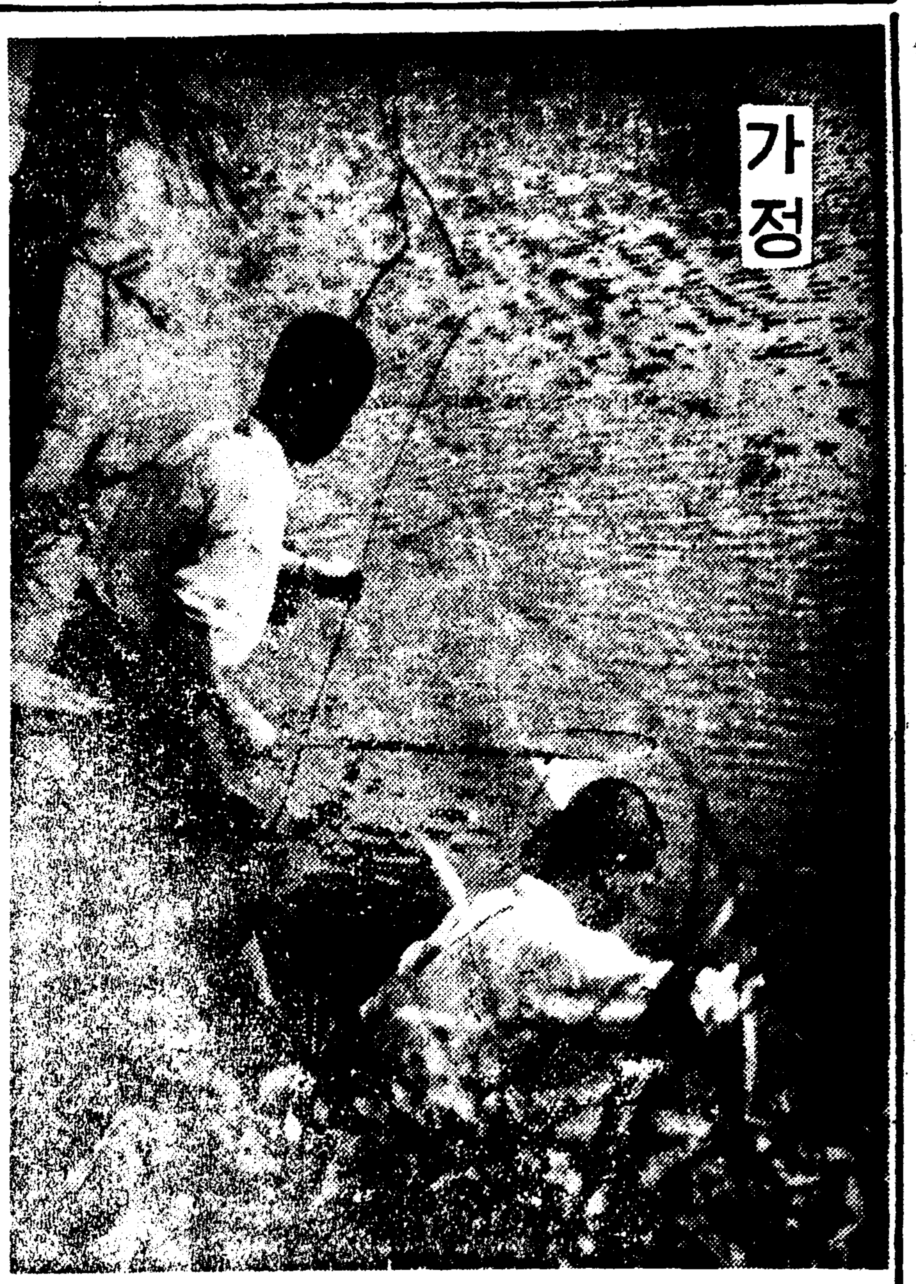
[illegible]

十八等 シャープペンシル

[illegible]

十九等 團扇二本

[illegible]



"더위"와"정신생활"

한난계와가치움죽이는마음
어쩌다일저지레도한다

요즘가티 더운때는 이더운것때문에 정신상태가 여러가지로 정상상태를 버서나서 소위게절적 혼란을 가저오는수가 만습니다.

더위에는 두가지가잇는데 삽복안더위는 대개 무덥고 복이 지나노흐면 남아지 더위가 그야말로 백열적 더위를 내려쏘고잇스나 그래도 이튼지 간조한맛이납니다.

몸씨더우면 혈액이 피부면으로 모혀들므로 정신이 흥분하고 마치 한잔먹고 취한사람의 기분처럼 마음이들떠서 경솔해집니다.

그런까닭에 싸움도 잘하고 공연한 분쟁도하게되고 물건을부신다든지 냉정해지지못하고 동적상태가됩니다.

그런데 더위가 점점심해지면 역효분되든 정신상태가 아조 대단하게되여서 일종의마비상태를 일으킵니다.

정신이 축느러저서 기운이업고 일에 능률이 아니납니다.

다행이 하느님이 먹을것을만히주어서 일을하지안코도 먹을수잇게되엿스니말이지 우리처지로 그런다면 큰일날것입니다.

그리고또 덥더라도 늘더위가일정해잇스면 우리의몸도 거기에따라 적당하게되는데 더위가 작고변해서 개엿다흐렷다하면 그미치는 악영향이대단합니다.

몹씨 무더운날엔 숨쉬기조차 거북하고 습도가 팔십도이상이나될때는 마음이공연히 무겁고 불유쾌한것입니다.

살인적흥서란 흔히사람을연상(聯上)을시킵니다。불유쾌한정신상태에잇슬때는 보는것、듯는것이 모다불유쾌하고 그래서흥분한남어지 분별을 일허버려 불발적사건을 이르키는수가만습니다.

이러것이 심하면 자연히살인을한다든지 누굴때린다든지해서 울을 풍게되는것입니다。어째든 심한더위에 정신상태가 흥분해서 부부간、형제간、고주간할것업시 발끈하고 성내기쉽고 마음이 들떠서 이상스럽게됩니다。

큰범죄를한다는것은 특별한경우지만 대체로는 더위때문에 기분이 조치못해서 노하기를 잘하고 감정의변화가 심해서 소위번더울때시 피게되다가도 가을바람이떠러지면 어떠한 증세가 업서집니다.

생선찜을하나 국을끄릴때는

명태、대구、민어 이런물속의 생선으로 국을끄린다、또는찜을 한다할때에는 아무러케나하면살이 허무러저서 자미적습니다。더구나 찜가튼것은 살이단단하지안코서는 저까락으로 집어올리기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생선은 먼저잘드는 칼로 께끗시 잘써러가지고 진한소금물에 당거두엇다가 그다음에는 엷은소금물을끄려 그물끌는속에 생선을넣읍니다。그러면 살이허무러지지안코 깨끗시 되어집니다.

요새나는과일의 드리는법과 밧는법

수박씨는사시로떠낼일 입으로발기는것은천격

지금은 실과가 흔한때인때 실과는 의외로 먹기가 힘이듭니다。이건곳은말이나 하면 손님으로가서 실과가튼것을 내여노흐면 그것을 어색하지안토록 먹기가 쉬운노릇이 아니란 말슴입니다。

만일잘못먹어서 옷을 더럽힌다든지 떠러트린다든지 하면 대단히 창피하지안습니까。그러므로 실과를 내여 놋는편에서도 되도록손님이 먹기쉽게 만들어내여놋는것이 당연합니다。

메론、수박 은 이런것 대게 크다라케 얼네빗 모양으로 오려서 내여놋습니다 수박은 속에씨앗섞쪽만 남작나작 오려서 그우에 어름을 가려서노아 내여가도 좃습니다。

이걸먹을때는 포크로떠먹지말고 갈구리가딸린 스푼으로 먹으면 조흡니다。그런데 씨는 미리스푼으로 빼드리일에먹을것이요 입에서 씨를 빽아내는것은 흉합니다。

포도、 여튼그냥 송이채내는 씨와 껍데기를 배앗터서 한쪽에 노흘것입니다

사과、배 이런것은미리 깍거서 내여오는 사람이잇스나 그것은 별노조치못합니다 그냥 통채로 깨끗이 씨처서 칼을바처서 내여노흐면 주인이 깍든지 손님이 깍든지할것입니다

그런데 통채로 물녀가며 벗기는것은 상스러우니 이것을 두쪽에내고 또다시두

딸기 는 그냥 꼭지떼고 우유나 사탕가루를처서 내여놋는데 이것은 스푼으로 두세번군허먹으면 됩니다

여름어린애 젖먹이는법

운다고더퍼노코 먹여서못씁니다

어린애는 어머니의 젖으로 기르는것이 제일인데 어머니의젖을먹고 자라는아이도 안끓여먹이고 자라는아이보다 되려더 영양이 나쁘고 소화불량이 생기는것은 어머니된이의 수치라고 하지안흘수 업습니다。여기에 여름 애기 기르는 법멧가지를 말슴드리겟습니다。

一、회수=먼저 젖먹이는회수를 날지 두수일이내의아이는 하로에 여섯번 흔일곱번、그이후엔 다섯번、한번젖먹이는시간은 십오분이면 조코 세시간마다 먹이면 조습니다。

밤엔 되도록 잘자게 젖을 적게 먹이는것이 조코 잘때에、젖꼭지를 물고자버릇하면 아무리라도 습관이되여서 젖을물고야 잠을자게됩니다。

二、자세=젓을먹일때자세는 되도록 안고먹이는것이 조코 먹인다음엔 혼자 재이십시요。좀 울더라도 그대로 재우면 그대로잠이들게됩니다。이러케하면 아이의게도 조코 어른도 편합니다。

아이때문에 흥분한다고 수선을피는 어머니는 자기가 먼저애기에게 조치못한 버릇을들여놋은 셈입니다 무엇보다도울때마다 젖을먹이는것은 아조재미업습니다。

애기가 자지안코 보채는것은젓이 부족해서 배가골흔지그러치안흐면 어디가 알흔지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울음소리와 모든것을보고 얼른판단해내야합니다그러나 그저 울고시끄럽다고 그냥내버려두시지요。

분유=젖이 부족하면 별죽상 영양이 만흔데 어머니가 편식하지안코 어떠가지를 잘섞어서 젖이잘나도록해야합니다。

또는 어머니의게병이잇스면 꼿애기에게 젖을 하니까각기、결핵、당뇨병、심장병가튼때는 젖을먹이지안는것이 좃습니다。

그담엔 아이들에게는 젖을주는외도 때때로물을 먹여야합니다 더구나 여름에는 어른이 목이말러애를 쓰는데인줄 밖에나 젖먹이는지간외에 줄거든 물을먹어서요。

벗"테"글"고"거"친"살"

호르몬제로히게돼요

여름동안엔 아모래도 얼굴이 꺼릅니다 더구나 해수욕가튼것을해서 새깜앗케 타버린분들은 여름동안에그것도 회밝한자연미를 보혀줄수잇스나 차차 날이헌선해지고 가을이 쨀히면누구나 얼는다시 채살결대로히게되고시퍼합니다

바다에서 꺼플것은 그냥 벗데서 꺼플것파도 달려서 소금기운때문에 피부가 몹씨거칠어집니다 그러므로거츠러진것도 함께곳치지안코면 안될것입니다 살결이거친데 제일조흔 방법이잇는데 여것은 대단히 효과가 큼니다 먼저목욕한때 얼굴에 더운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다음에 콜드크림에다 녀성홀몬주사액(약방에서팝니다)을얼일분의 반쯤석거서 이것을얼굴에 끌고문질러서잡간두엇다가 다시 수건으로 꼭처냅니다 그런다음 찬물수건으로 피부를 수축케해가지고 이번에 벗겨까픈것을 벗겨지게해야겟습니다

몬저 보통가루분을 옥씨풀조금에다가 섞거서개여가지고 얼굴에바릅니다 그런데 이것은표백제이기때문에 이마나 눈섭가튼 털난곳에는 묻지안케 주의해야합니다 만일 눈섭가튼데라도 무드면 희더지버립니다

이러케 발녀가지고 한오분동안잇다가 씻처버리고 영양크림을바릅니다

이만하면 놀라울만치 두먼이거죽어진것이나 벗겨까픈것이 쉽게버서집니다

옥씨풀을 그대로는 별우강하다고 생각하는분은 약간 물을타서 써도좃습니다 도는 피부에따라 옥씨들이 맛지안는분은 표사향가루분에 살분지알을 섞거서써도 좃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손질하게 아니라 꼭 손등에도 늘 섬해야합니다。

도세수에 비누를 ... 분은 다행이겟스나 그러치못하면 절대로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이러케하면 예부터서요 양팔코가 러지거든 곳 물이나 칠을 그곳에 무질러서요 그러면 절대로 머러지지안코 그냥 견디어갑니다。

그런데 팔으면 도 터지기쉬우니 팔을새어서 작고 적게해두어야합니다。

복숭아는만지면 그자리가상해요

요즘 수입도가 나옴때입니다 복숭아 가온데는 우리가 흔히먹을수잇는것가운데 천진도(天津桃)라해서벗어붉고 살이굿고 몹씨식맛이잇는것이 잇지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두쪽으로 쪼개면 씨가잘떠러지나 맛이별우시고 씨조치못하니갑어차기때문에 정을만드는데는지 화채를만드는데는 조습니다

그담에 수밀도가 조흔데 수밀도는 전체가 크럼벗오로 노르스름하고 꼿만야간 붉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잘익고 맛이든것 맛이여간 달드니지 안흐므로 제일조흔것은 몰로오자도 조와야겟지만 아조잘익고 윤택잇는 것으로 골을일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디가맛다엇다든지 눌렷다든지 하면곳그자리가 벗이 변하면서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러케되면 섬유만 남어서 맛이업서집니다

더구나 살때에 손까락으로 꾹꾹찔너보는 사람이잇는데 그건아조금물입니다 그자리가 곳상하니까요 엇든 수밀도는 대단히조흔과실입니다

▲흰구두손질▼

새로 지은 흰구두는 처음에 지어서 몬저 흰크림을 발너두어야합니다 그러치안흐면 그냥 몬지가 붓바닥에 드러배여서 좀처로 버서지지 안습니다

크림을 바르는것은 몬저 표면보에 풀고로 발너서 벗혀다내여노아 둡니다 그런다음 부라시에 풀을약간 속여가지고 다시 한번붓고로 문지릅니다그러면 때가 쉬끼지안습니다

비단양말이 풀리기시작할때

여자들의 비단양말이 깻떡해서 한코터지는날엔 그냥 죽죽 풀려나갑니다。

만일 차중에서나 어디외출햇다가 이런일을 당하면 여간당황한게 아닙니다。이런경우에해

맛안변하게 고기써는법

고기를썰때 고기의 결의길이대로 썰면 연한고기라도 질깁니다。

고기가 질긴것은 속에배인힘줄이길히는 까닭인데 길이를쩔면 힘줄이 그대로 잇게되는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는 늘 가로쩔어야합니다。그리고 고기를 살때 되도록 기름끼가 섞긴것을 살것이니 기름은 카로리ㅣ가되고 또맛도 이기름끼가 잇서야 나는것입니다。대개는 살때에야조 살고기로만 달나고 하는분이 만흔데 그것은 고기를 잘 모르는사람의 말입니다。

여름 임부와유아의위생 ①

음식조심잘못해도 유산되는수가잇다

어린애는잘때 배를가려줄일

女醫 李聖淑

때가 마침여름이라서 이때에 특별히 임신하신부인들과 어린애기들이 주의하여야할 멧가지를 이야기해볼까합니다。

여름철에 임부(姙婦)가 첫재로 실패하기쉬운것은 소화기(消化器)의병입니다。보통사람이라도 흔히 여름에는소화기가 약해저서설사도하기쉽고또는밥맛이업서지며 몸이쇠약해지는수가허다합니다。더욱이 임부(姙婦)는 소화기가 약해저서 먹은것이맛이업고 더위도 더못기게됩니다。그러므로어름물이나『아이스크림』등을 먹거나 또는조끔만잘못한것을 먹으면 보통때와달리서곳설사를하게되는수가만코 그에따라 류산(流産)이나 조산(早産)을하게되는수가 종종잇습니다。그러니까 여간더운때라도 밤에 잘때는 배를덥고자야합니다。배를차게하지말것이며 또는 어름물가튼것도 될수잇는데로 먹지안는것이 조흐며 혹아이스크림이먹고십흘때에는 천천히 조금씩먹어야 할것입니다。그래서 만사에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안될것입니다。

◇◇◇

젊은 부인들 더군다나 임신(姙娠)하얏이업는 부인들은 한두달 경도가 끈어저도 자기가 임신한줄을 몰으고 게시는이가 허다합니다。

이러케 자기가 임신인줄을 몰으고 게시는이와 또는 임신한줄은 뻔히 알고잇는이들이 평시와 다름업시 등산(登山)을한다든지 해수욕(海水浴)에 가는이가 만습니다。그래서외종일 유쾌하게 놀기는 하엿스나 그때문에 유산(流産)하는일을 흔히봅니다。될수잇는대로 그러한 경솔한짓은 삼가야할것입니다。

◇◇◇

각기(脚氣)는 여름철에 특별히 만히생기는병입니다。더군다나 임신하게되면 몸에비타민이 더욱 필요해지므로 지금까지 한번도 각기(脚氣)에 걸린일이업는이라도 흔히 각기에 걸리게됩니다。좀크게말하자면 여름철의 임부(姙婦)는 거진다ㅣ『비타민B』의부족을 느끼고잇다고볼수잇습니다。다시말하자면 대부분이 경증(輕症)의 각기(脚氣)에 걸렷거나 또는 각기가될라고하는 상태(狀態)에잇다고 보아도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임신중 각기에 걸리게되면 그냥두면 낫기가어렵고 또는해산할때에 여러가지탈이 생기기 쉽습니다。그뿐인가각기병을 대수롭게 녀기고 해산후에까지 치료(治療)하지안흐면 귀여운어린아해까지 유아각기(乳兒脚氣)를 일으키게됩니다。그것은『비타민B』가부족한젖(乳)을 아해가 먹기때문에결국 아해에게 각기병이 생기게되는것입니다。그러니까 임부되는이들은 더욱주의하여서 각기(脚氣)에 걸리지안토록 예방(豫防)에 힘써야할것입니다。

그러면 각기병을 치료하고예방하자면 어떠케 해야조흘지 다음에 이야기 하겟습니다。

현재주식(主食物)으로하고잇는 백미(白米)를 그만두고서 배아미(胚芽米)라는것을 주식(主食)으로하면 조습니다。배아미에는 『비타민B』가 백미에는만히 남어잇는까닭입니다 처음에는 맛이업스나차차먹어보면 오히려 백미보담도 구수한맛이생기며 밥맛이나고 식욕이조와집니다。그에따라서 부식물(副食物)도 될수잇는대로『비타민B』가만흔 야채(野菜)로만 우유등을 만히 먹는것이조흐리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에 요새 여름철의 갓나애(乳兒)에대한 주의를 멧가지이야기 해볼가합니다。

제일무서운것은 잠을잘못재워서 아이들의몸을 차게하는것입니다。그때문에 감작스럽게 고열(高熱)이나며 설사를하기시작해서 어머니들을 놀라게하는수가 만습니다。그러타고해서 더운철에 빨두꺼운 이불을 덥허줄수도업스나 배만은 얇은이불을 덥허주며 더우다나 밤중부터 새벽에는온도(溫度)가 나려서 쌀늘해짐으로 조금두터운것을 덥허주도록 주의하는것이조습니다。

우리차지

빈병

아버지 『기차라고 어데갈때 빈 사이다병 가튼것을 창박그로 내던지면 안된다고 하저안트냐。그건 무슨까닭일까』

복돌이 『네ㅣ 그건팔면 일전씩은 밧는거니깐요』

(京城사람 박 례 복)

長篇小說 愚氓

朴泰遠 作 洪祐伯 畵 【105】

山속의妖婆(5)

그 괴이한 노파가 권하는대로、장씨는 찐지쪽 하나를 반찬 삼어 새옹의 밥을 다 먹엇다。그가 그러케 밥을 먹고 잇는 동안、노파는 다시 눈을 감고 단정히 안저서、그 옴지기지 안는 모양이 마치 목미러파 흡사하다。

비는 역시 줄기차게 나리고 잇섯다。우뢰소리도 이따금씩 들려 왓다。고작하여야 아침 여덟점이나 여덟점반——그밧게는 안되엿스련만、비나리는 산속은 황혼을 연상하게스리 어두엇다。

달리 사람의 모양을 구하여 볼수 업는 그곳 굴속에 마치 돌미력파 가티 꼼작도안코 안저 잇는 어상한 노파와 그여페가 또한 말 업시 안저 새옹의 밥만을 먹고 잇는 장씨의 꼴이 만약 누구든、보는이가 잇섯다 하면 매우 해괴스러웟슬것이다。

장씨는 제자신 그것을 느끼엇다。그래 그는 몃번이가 이것이 혹은 자기가 꿈이라도 꾸고 잇는것이 아닐까?——그러케 생각하여 보앗다。그러나 그것은 물론 꿈이 아니다。

장씨가 밥을 다 먹고 낫을때 노파는 다시 눈을 떳다。그리고 그는 장씨에게로 자리를 고처 안즈며 말하엿다。

『다ㅣ 액운이지。액운으루 몽둥이가 그러케 다리병신이 됏지。그대루 두면 변통수 업시 평생 병신노릇 하게만 될게란 말이야。』

장씨는 귀엽한 눈으로 노파의 말하는 얼굴 바라보다 물엇다。

『아유、그러니 어쩌면 조흡니까? 그저 귀히 보시고 고처 주세야지요』

『속절 업시 병신될 수란말이요。그걸 낼롬 어쩌겟소만은』

『……………』

『세일해동안 드려은 그 정성이 가상하오 산신님께 빌어온 그 마음이 참말 갸륵하구려』

『네ㅣ그저 귀히 보시고……』

『그 의원이나 및고 무슨약이나 쓰고 그저 그런이엿더면 귀여운 어린자식 다리 병신으로 여엉히 버려두엇소 허지만 참말이지 정성스런 마음으로 산신님께 빌기가 다행이요』

『저ㅣ그럼은 어떠케 우리몽욱이 다리가 낫게 되겟나요? 어떠케 병신을 면하게되겟나요?』

『될 도리가 잇기는 잇지허지만 이제 아프로도 정성이더 잇서야만……전생에 죄업이워낙이 커서 그래서 바른 벌역이라 다친 아이야 첨업고 어린게 무얼 알겟소 만은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그애를 배신해서 아프로 정성이 더 잇서야만……』

『네ㅣ 네ㅣ 그저 불상한자식을 병신만 면하게 하여주신다면 대체 무엇을 아끼겟나요? 무엇을 사양하겟나요? 그저 도리를 아리켜만주시면 하라시는대로 다하지요』

진심으로 말하는 장씨의 얼골을 노파는 잠깐 바라보고잇다가

『천기를 어찌 내가 함부루누설하겟소만은 자식 사랑하는 그 정성이 갸륵해서 일러주거니와 몽욱이가 흉악에 걸려 집안에 근심이 큰것은이를테면 해빛을 가리운 한가닥 검은 구름이요 그 구름만 이제 지나고 보면 아프로 운수가 대길할것이요』

『저어 몽욱이가 병신도 면하고 말슴이죠?』

『아무렴 병신을 면하지 면하구 말구…… 허지만 아직 그 시기가 안됏스니까 이제 명년 봄이나 되여야、그애액운이 다 지내가야만……』

『그럼 명년 봄엔 정녕 몽욱이 다리가……』

『낫지、정녕、낫지、허지만두그안에 세가지 일을 차례로치러야만 하지』

『세가지 일을요?』

노파는 직시 팔을 안코 잠깐 고개를 돌려 굴밧글 바라보다가 좀더 은근한 어조로 말하엿다。

『첫째 큰딸 시집을 보내야하고、다음에 졸가해 서울로올러가야 하고、그리고 끄트로 삼천명의 친구와 사괴여만하고……』

장씨는 정신을 일흘 사람가티 멍하니 노파의 얼굴만 께어다 본다。

여드름
ニキビ
부름에는 반드시 이藥!
여드름 부름等에 잘드르므로 大評判의 藥입니다
벼룩 모기 빈대 지득이等의 毒虫으로 가려운때……
그럴때에 이藥을조금바르면 異常하리만큼 잘낫고 부시럼이 될念慮가업스므로 어린애들이잇는 家庭에는 特히便利합니다
▲美容藥으로서도
이藥은 또 美容藥으로서도 比類업는 效果가잇고 入浴後와洗面後에 조곰식바르시면 아주 爽快하야 여드름 부름을 防止함은勿論 살결이곱고 윤이나서 얼굴이닥가낸듯 어여뻐 집니다
▲定價 一圓五十錢 六十錢 一圓廿 全國藥店에잇슴
にきびとり美顔水 니기비도리

アブラ顔 (기름얼굴인)
분도★인제는 걱정업다!
아스토린젱의 훌륭한美容作用
그것은 웨?
기름끼얼굴이분은脂肪粉이 너무만히괴는까닭에 白粉이곱게안받고 化粧도곳처버서지지마는 化粧前에(粉化粧時는 化粧下크림을 발은後에) 明色아스트린젱을 二三적 발르면 膩汗을 收斂作用으로 皮脂腺을 緊縮시키고 脂肪分의 分泌을 根本的으로 調節하는故로아무리기름끼얼굴이라도 白粉이마음대로 어엽부게발라지고 化粧도異常하리만큼오래갑니다 歐米婦人은化粧前에 반드시 新强力化粧水아스트린젱을…습니다
▲기름진얼굴이낫는다!
朝夕으로洗面後明色아스트린젱을常用하면기름끼잇는얼굴이 次第로엽서지고 얼골이눈에뜨일만치곱게됩니다
겨우二三滴으로 化粧한맵시와지랑이全然달러집니다
歐米婦人은化粧前에반드시아스트린젱을使用합!
明色アストリンゼン 아스토린젱
4-190

桃花劇場 光化門二三三三番
八月十二日부터十四日까지三日間 每日晝夜二回(晝一時夜七時三十分) 大人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大每ニュース
◇松竹京都作品全發聲版!! 白虎隊
◇松竹作品全發聲版 恩愛二筋道 主演 嵐寬壽郎 上山草人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世界の歌姫 主演 リリイ·ポンス嬢 メトロポリタン名歌手 新貴アレトレコステネラック氏

新富座 (京城新堂町) 本局五五七番
八月十二日早터十四日까지 土、日、祭日晝夜二回興行 正午·六時開映 實演日二回晝一時夜七時三十分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全勝キネマ社作品 時代活劇 飛龍必殺劍 天津龍太郎 菱田豊子嬢 主演
◇ワーナー社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劇 ブラウンの千兩役者 主演 ジョーE·ブラウン氏
◇ワーナー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海洋活劇 海行かば 主演 デイック·パウエル氏 ルビー·キーラー嬢
大每ニュース

若劇
八月十一日より十五日まで 五〇セン均一
劇服の遠女 6·15 1·50
大朝ニュース 7·45 3·20 11·00
花ちりぬ 7·55 3·30 11·10
大每ニュース 9·15 4·50 12·30
ペーアギント 6·25 5·00 12·40
(一)獨逸トビス映畫 ドロテア·ウヰーク主演 (三)東寶映畫 花井蘭子主演 (五)早川雪洲主演

樂劇團 眺源境公演 第三週告別週間 八月九日早터四日間 晝夜二回、晝一時·夜七時半 連日觀覽料金三〇、二〇均一

團成社 電話光二四九二番
上演曲目 ◎洪開明演出 ○李瑞求作、南宮濡音樂
바라에티ー二十景 노래、춤、째쓰、넌센스
오케ー大演奏會
結婚太平記五景 特別豫告近日公開
團成社直營 S·M·O·째쓰뻔드 八月九日부터西鮮地方巡業中

第一劇場
八月十日早터納涼大公開! 大衆席 二十錢 十錢
パーテニュース
大每東日支那事變ニュース
國防と警察ニュース部
女學生と兵隊さん 飯田蝶子 香椎三郎主演 松竹大船超特作 蟠川伊勢夫監督
ブラウンお馬に乗って 主演 ジョーE·ブラウン氏
ワーナー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海賊ブラット 主演 에롤·플린 오리비아·데하비란드 마이켈·카ㅣ데이스監督
와ㅣ나ㅣ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深夜のマドンナ 主演 마디·고레ㅣ
コロンビア社特作 モロッコの動亂

優美館 電話光化門三九五
八月十日早터納涼大公開!
龍虎雙劍士 前後篇 大河內傳次郎 監督 ...
東日大每 支那事變ニュース

智異山探險記

智異山行第一日(七)

華嚴洞府의 無礙境 ⑪

李殷相

期約업시다 나는 걸음이 더욱 華嚴寺 던들 華嚴寺에 하룻밤잠 들면서 저淸虛禪師가 어정에지나가며 지은 山川寶鏡照 秋草臥龍鬣 古殿月痕吊 說法風赤萩 라노래한 그 애끗한 마음 境地를 그윽히 어루만저보련마는 오늘밤을 老姑壇위에서 잘것이라 해는 저물어가고 갈길은 二十里나 섭섭한채로 떠나는수 밧게업다 午後五時 떠서 네時다 여기서

부터蘆山의첫길이 서작된다 寺의右便으로하야 溪谷을끼고오르는 山峽路를 잡아드니 발길은 빠르고 마음은 느리다 華嚴寺 華嚴圓敎의 法會가 어찌따로 어느날에만 限定되어 行하는 儀式이겟느냐 여기 이華嚴洞府에 흐르는물소리 나무가지에 불고지안는 바람소리가 一抄一刻도 끈힘업시 法界緣生 圓融無礙 性相圓融의 眞理를 說하고잇는 無休法會가아니고 무엇이랴 法藏의 二十卷『探玄記』도 여기自然으로 굴러잇는 바위옆 한구석에 일어낫다 꺼지는 물버큼속에 仔細히도 적혀스며 澄觀의 九卷『玄談』도 여기 어들고에 배치어 괴어낫다 떨어지는마큰 려하잇지아니하냐.

智儼의「五十要問答」을 따로 어디가 찾을것이다. 稠林사이로 흘러오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華嚴圓敎의 妙說을 傳하잔는냐 杜順의「法界觀門」을 구로 나하어온 조히를 뒤저 읽을것 없다. 저 허러지는 구름사이로 나타나보이는 샛파란하늘이 眞空絶相觀 理事無礙觀 周遍含容觀을 如實히 說하지 아니하는냐.

自在化佛의 大目錄이어매 몰파마상봉드럿기고서 萬有無礙의至極境을맛보고저함이 오늘 나의 最大念願이오 最高至福인것이다. 眞行의 根本依支인 華嚴三昧에, 너와나 지금 여기 어 모든有情無情이 다함께 安息의 最上寂境을 얻웃수 잇다.

맞은 오흘 여울목이 華嚴 瑞光한 眞實의 本性生命이 빛나는 그面影을 서로 볼수잇을 것이다.

山路中의 느러나무아래서 땀을 씻다 도라오고 다시거러갈마끔 오르노라니 平坦한 번더가 전게드러인것이 分明한데 무르니『國師隱』이라고 한다.

이山中에 無數가 도라오기 以前부터 또는 그以後 지금까지 天王峯의 氏俗民俗이 다른어디서보다 가장뚜렷하고가 자롯하야 그繪畫의 玄妙相이 한군대 두군대만 잇는것이 아니것마 여기에 『國師隱』 라는것은 우리의 寰中에서것 번으로만나 그의晩年 形象이다.

이國師隱이란것이나『中재』를 넘고 다시 松林우거진 그 宮길을 오르노라니 右便으로 鷄谷이 나려가고 斷層絶上에 옹적못한바위가 솟앗는데 어것을 靑鶴淵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鷄谷의이름도 靑鶴洞이라부르니 靑鶴洞이다게 올것녀 저 松林에 잇던 靑鶴

瓊은 오르고 오르는길이 華嚴寺를 떠난지 벌써 두時間이나 되엿다.『인제다왓소』하는말은 바랑에 不過하고『아직도 멀엇나보다』하는 말이 더욱 山짐에 가든도하야 집안이 더 이궁명이를 떠밧는다.

所以에 예가分明 一種의 五音이어고 요히 잘드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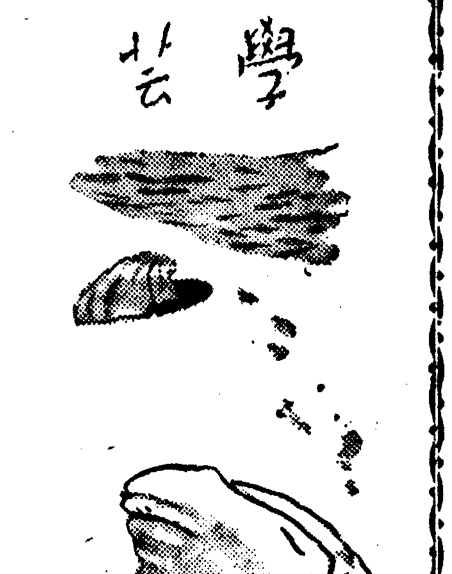
여기서 엄마아니하야『곡재』에오르니 右便에 어상하게도 내를이흐러 新년어로 떨어지는때 어것을『무넘기』라한다. 『곡재』라한은 老姑壇을 標準으로한『중턴』의 分水嶺임을 말함이겟는데나 『무넘기』라함은 이嶺上에서 다시한번 山岳을 瞭望하면서 莊嚴한山上의 靈氣를 노래한다.

嶺上이 놉도구나 골이 깁더란니 여한 雲霞이 도로에와 보이다니 天公도 내뜻을알아 해를어제 접그시네.

千山에 해는저물고 구름만 나르는데 나그네 막대세우고 무슨생각에 잠겻는가 무엇지 나도모르매 어둘길이 업노랑.

(鳥嶺三嘯詩選下)

學藝



題材의 特殊性과 普遍性

八月創作二人一評 (三)

朴英熙

어느때든지 人情과批判은 相異한領地를 가지고잇다. 作家는 自己의 作品에 關해서 그長否를 무엇이시 말수업는 愛着을 가지고잇다. 그것은

「畸」形兒를 가진 어머니와가티 때로는 自己스스로 畸形兒에關한 不幸을 마음속으로 은근이 歎息하다가도 다른사람이 그畸形兒에對해서 흉보는소리를 드를때는 그 어머니는 事實全部를 否認하고 無條件하고 自己擁護에 熱中하는것이다.

어러한 盲目的愛着까지도 흔이는人情이라는말로 應破하려는것이다. 그러나 事實에對한 批評은 어디까지든지 嚴正하지안호면아니되는것이다. 그러나 嚴正한것이 批判이라고해서 各各作家가 가진 自己著作에 關한 愛着을 無視하려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作家自身의 絕對自由일것이다.

自信업는 作品을 發表하는作家는 上論한 畸形兒를 所有한 어머니와가티 不利한批評을 覺悟하면서도 그럴수록 盲目的愛着의 武器로 抗拒하려는 일도 잇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마다 다 그런것은 아니다 이곳에는 修養이 必要하다 이修養이 엇는사람은

「善」實際의事實을 事實로써正當히認하게되는것이다 그러한 程度가 漸漸深化될수록 自信업는 作品은 發表하지 안케되는것이다.

嚴興燮氏의 作品을 말하게되면서 이러한 序論을 늘어놋케되여서 좀히 未安한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嚴興燮氏個人에게만 하는 말이아니라 全般的으로하고시픈 말이다 다만 嚴과나의 友誼가 그만한것쯤은 彼此에 諒解할수 잇는까닭에 作品評을 쓰는 此際에 新聞紙面을 利用한것이다.

그러나 嚴興燮氏의 四海公論에 發表된(八月號)『敗北아닌敗北』의 一篇은 다른사람의것이라면 몰러도 嚴의作品이었으니 것은 우에서말한바와가티 確實히 畸形兒라고 아니할수없다 作者가 이畸形兒에對해서 어떠한은 毋慮嚴作家의 愛着의程度를가지고 잇는지 아니가지고잇는지는 알수업스나 나의 推測으로한다면 어作品에 對해서는나보다도 作者自身이 더酷評을 나릴줄로 알기때문에 나는 오히려 緩和된態度로써 말하기를 躊躇하지아니하는바이다.

어作品의 題材는 普遍的인것이 아니고 特殊的인것이므로

「普」遍的題材를 取扱한다면 처재로 題材에對한 讀者의 印象이 不分明하게되는것이다. 作者의 意圖를 着하면 竹馬故友인 두親友의 生活相의 比較—一商人과 小說家의 生活을 比較하려는것이다. 그러나 어比較는 아모 刺載性도업는 平凡한場面이 되고 마럿다. 一般이 말하는 商人은 饒富하다는것 藝術家는 貧窮하다는 概念에 머무르고 마럿다 商人의 吝嗇을 深奧하게 그리것도 아니며 藝術家의 淸廉과 貧窮을 悲痛하게 描出한것도아니다. 따러서 作者가 어느一面의 生活을 比較하려는 意圖의 目標가 나타나지안헛다. 作者의 特異한生活에對한 아모런 目標가 업다. 藝術的創造가보이지안는것이다.

同一한題材, 或은 옛적부터傳해나려오는 凡俗한 題材를 取扱하면서라도 力作을만들수잇는것은 作者의藝術的創造性이 또렷이잇는때에 생기는結果다 그러한까닭에 조흔題材를 가지고도 失敗하는까닭은 이藝術的創造性이 업는까닭이며 凡俗한題材를 가지고도 力作을 만드는것은 그作者의

「藝」術的創造性이 確實한까닭이다 어 藝術的創造性이란는것은 여러가지로 解釋할수잇스나 어적은紙面에서 言及할수업스매 簡潔하게 要約해서 말한다면 作者의 確實한 人生觀—生活의觀察하고 分析하는態度가 完成된것과 그것을文學的으로 綜合하는能力이 完全한것을 意味한다고 말할수잇다.

어『敗北아닌敗北』의 一篇에서는 이러한 意味에서 作者의 生活에對한『特別한態度』라고할만한것이 全然缺如되여서잇다. 그다음에는 二個의 相異한生活面은 어떠케 綜合되엿는가하는 問題다. 이 綜合은 作品에 가장 重要한 要素中의하나다. 그런데 根本으로부터 이作品에는 作者의意圖된 方向이 確實치못하니 綜合도 無目的的對照에 不適하게 되여서 그結果는 至極히 平凡한것에 머므르고만것이다.

이 作品에서보면『나』라는人物—(商人)—의性格은 S라는親友—(小說家)—가 二十圓의貸金請求를 拒絶한것이라든지, 每月二,三百圓의利得이잇슴에 不拘하고 每月二,三百圓 缺損한다는말로써

『表』現하려고 하엿스며 S라는 小說家의性格이라는것은 더욱이 어려라고 나라니일點이 도무지업다. 머리가 더부룩하고 가을옷을 겨울에 입엇고 얼골이 흙답하고……等의個別한 形容들한것뿐이며 또한 小說을알앗다는그理由가, 어小說을 構成할만한 新奇한事實도 못수업다. 그러므로 여S의 失業, 落膽, 無氣力이 무슨까닭으로 發生하엿스며 그程度는 얼마나 되엿다는것도 업다. 또한 小說안쓰는것을商人은 말하기를『敗北아닌敗北』어라고한意味도 무슨뜻인지 理解하기어렵다.

『敗北아닌敗北』은 나에게 아모 感興도업시 아모思索도업시 아모刺戟도업시 외게하엿다. 嚴의作品을 오래간만에 읽은지라 나는 놀라지안홀수업섯다.

新刊紹介

◀食糧經濟 八月號 發行所東京市麴町區丸ノ内海上ビル 日本米穀協會事務所振替東京三〇四二九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新人間 八月號 發行所 京城府慶雲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作家의 情熱과 文學의 思想性 ①

尹圭涉

文學에잇서서 思想性의問題도 以上과가튼 가장根源的인 意味에서 把握할 必要가 잇는것이다 即作家는 먼저 據揗을그一般化를 遂行하지안흐면 아니된다(—거기엔 이미思想이잇다) 同時에 그것은 具象化되지안흐면 아니된다.(—그러치안흐면 文學을 이루지못한다) 作家의 思想이란 여가련 特殊와一般의 具體的인 結合과 統一을 떠나서따로 存在하는것이 아니다.

그럼으로 딜타이의『詩人의世界觀이 가장 强力的으로 나타나는것은 不充分한 直接的인 思潮에 依해서가아니라 오히려雜多한것을 統一하고 部分部分을 結合하야 하나의 有機的全體로 만드는 에네르기—에 잇서서이다』라고 한말은 이點에 기픈 洞察을 가진것이라고 할수잇다 作家의 思想이란는가 世界觀은 恒常作品가운데 浮動하는것이아니라 作品形成의 內面的에네르기—가 될제만이 가장强力的인 光彩를 나타낼수잇는것이다 또한그때에 비로소 思想이라든가 世界觀은 作品에잇서서 外在的인것을 潔斥할수잇는것이다 한때 傾向文學時代에잇서서作家는 確實히 그思想乃至世界觀을 外部에서 受取하야 그대로 吐出한것이 잇섯다 그러나 그 思想乃至世界觀은 作品構成의內面的에네르기—로 轉化하지못한限 하나의 藝術에 지나지안엇슬것이다(—그럼으로 當年의 最高水準이라고 할수잇는 李箕永氏作『故鄕』에잇서서도 그것이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것이잇다면 그作品가운데 作家의思想이 어느程度까지 內面的에네르기—로 轉化햇는가에 依하야 評價되어야할것이다)

勿論 이땅에잇서서는 藝術에 잇서서 思想性이란다면 곳 外在的인것으로 看做하는傾向이 蕃延되엿스나 그것은 時急히 是正되어야 할것이엇다.

存在와論理(思想)의 同一性이라 命題는 哲學에잇서서만이아니라 藝術에잇서서도 一般이다 참다운藝術家나 참다운哲學者가 하려한는이 論理라든가 思想은 이미 存在하는것으로써 發見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겨나오는데서 捕捉하지안흐면 아니된다. 思想은 마치 우리가 世界에 關하지안코 世界의外部에 어는空想的인點에서서 世界를 바라보드시 생겨나오는것은 아니다 科學의根底에는 技術이잇는듯이 思想은 움지기는 世界의內部에서 우리自身이 움지기는데따라 생기는것이다. 안(知)다는것은 바라다보는것이아니라 움지기며 움지거리는것이다. 어가思文學에서는 存在를要求하는것이 곳 思想을 要求하는것이며 思想을要求하는것이 곳 存在를要求하는것인것이다. 움지기는것은 他의것과 關係하는일이며 自己와 關係하는일이다. 이가티 움지기는것이 關係하는일이므로써 움지기는것이 아(知)는 것이 되는것이다 여기에잇서서는 存在와論理가 別個의것이 아닌것이다.

그러므로 이땅의 作家들이 論理에서는 眞實을 求하지못하면서도 오히려 思想乃至論理를 賦與하는것은 確實히 그들이 論理의 本質이란든가 存在와論理의 同一性을 理解하지못하야 基因한것이라고 할것이다.

이땅에잇서서 文學의 思想性의 問題가 이가티 正當한 理解에서 머러지게된 事緣을 말한다면 勿論 直接的으로는 過去傾向文學時代의 抽象的 論議가 禍를 끼첫다고도 할수잇스나 보다 根本的으로는 論理그것부터가 우리의게는 먼저 形式化되여서 歷史的으로 賦與되엿스면 思想도한 이미體系化되여서 外部로부터 賦與된 말하자면 歷史的 傳統으로보아 날근時代에 今日의 우리가 生活하고잇다는 事實이다.

이땅에잇서서 從來의思想이란것은 華情가 倫理的인 더욱이實踐倫理的인것뿐으로서 倫理以外의 純粹한 論理的이요 理論的인 思想은 全혀 그發達을 보지못하엿다 그러므로 그들의思想은 恒常 實踐倫理的見地에서 心術이 되엿스며 그것은 今日의 心境文學에까지 기픈影響을 주고잇는것이다

朴勝極著「多餘集」出版會

魚缸속아닌 금붕어生活

徐光霽

아이스커피

都會의거리를 나다니는 都會人처노코 아이스커피 한잔을 마실줄모르는 趣味와敎養(?)을 안가젓다면 그는 오른지 소리업시 눈나리는 겨울밤案頭에서 더운南方의 커피를 마시는 趣味와享樂도 못가질것이다

何必曰 아이스커피리요마는 못茶에對한 趣味가잇다면 거기에對한 茶의性格을 깨닷게되고 한개의 戀操가 생기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 A茶房에는 커피를마시러 B茶房에는 紅茶를마시러 C茶房에는 카운터걸 D茶房에는 레코—드등의 茶의性格과 茶房獨自의 모랄이 十七八世紀부터 二十世紀에이르는 실꼿니와 ??와 茶房속에서 都會人의 高尙한 趣味와 모랄을 提供한다

아모리 노장제기라도여름날의 아츰은 겨울의 따스한 햇쪽의 이불가티 오래끄는 괴로 두러눕수는 업다 오늘날것고 두러누엇든것도 避暑의 한方法이라면 貧房사리를 면하하는 都會의산사람이 알아면게는 어나마의 自由도언다

거리에 나오면 차저드러가 는것이 茶房일것이며 그들의 安息處이다

저녁때가되면 밤이라고 놀러 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케—드 레쏘—더(더운소—더는업스니)나 종에는 마실것이업서 무엇을 시켜노코 그냥안저서 二 번생각해본다. 아이스커피!두번째까지는 茶의 性格을理解해수고 趣味의 戀操를찾히다 그러나 어느새 茶房巡禮하는 바람의 맷속에 봉어의 벳때기모양으로 놀쭉하게나와잇다. 무엇을 하여걸 내 어떠케 해가나와잇나? 한

十錢내노코 더위를避하고 名曲과 차쓰를듯고 紫煙을 내뿜고잇다

서울의 그거리가 그거리라 면그茶房에서 면나는 그사람들이도한 매양 그사람들이다 最少數千圓 乃至一萬數千圓을 드러꾸며노흔茶房을 몃十錢내노코면自己의 살롱가티情다운親舊或은 미운사람 면하지못 맛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불수잇고 된말 안된말 都會의모—든惡趣味는 이곳에서 生産되며文事淸年들의 論爭의餘波가 茶房에서 버러지며 시네마와 飮酒客들의停留場이기 特急을이된다

그럼으로 그茶房의 盛衰는이러한 모—든 現代都會人의 性格과趣味를좌 맛처나가는데에서 決定이되는것이다 그러나 어떤 都會人이라고하는것은 버릇기와가티 언제나 세렴을 조화하는것은 아저서는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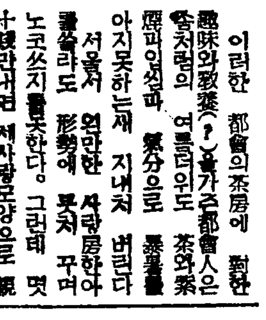
이러한 都會의茶房에 對한 趣味와敎養(?)을가즌都會人은 아서쩌의 여름더위도 茶와茶房을 아지못하는새 지내처 버리다 서울서 헌마한 사랑房한아 노코쓰지을못한다. 그러면 몃十錢만내면 제사랑모양으로 親舊를 그리로 오라고할수도잇고 自己가가서 기두를수도잇

고 설사 여메잇는 사람들이 모르는사람들이요 보기실흔사람이 잇다하드래도 제집사랑을 구경하러온 사람들로만치면 마음은泰平하며 어롱水가 는 얼마든지 그저마시고 南國花草를左右에 거나리고 嬌曲가듣고 레코—드의音樂이 흘러나오는데 房雜구에 걸쳐 안저 避暑의 樂園이어할로

오직都會人만이 그리고 高速한意味로서의 茶房의趣味와性格을 理解하는사람만이 자질수잇는 現代人의 조그마한自由고도 할수잇다

어러한 都會의 茶房에對한 趣味와享樂을 가즌以上에 名勝古蹟과 바다와江과 樂과藥水가 여름의避暑地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모든것이 산종장을 차저가는悲이 생기며 새롭고새로울 레코오 새로운 都會의 씩꼿니놓이즌 버러송이의 都會人과가튼 생각이든다 이 금붕어生活이 惡趣味라면 惡趣味일는지모르나 그러나 거기에對한 남이 모르는 高尙한趣味와 性格을 가진다 이또한 現代都會人의 한개의 자랑할수잇는 習性이라고도 할수잇다.

더위를避하러 山과들을 차저다녀오뒤에 肉體와 精神에 오는 反動을 두려워한다면 都會人은 오죽都會에서만이 더위를 克服시키는것이 우리들의 보잘것업는生活의 한개의軌道가 아닐는지? (八月四日 寄稿)



避暑의나 ④ 가안는 辯

(想華) 徘徊 外一篇 (上)

徐廷柱

徘徊將何見 憂思獨傷心 —阮籍

나는 詩人의 肺장에 꽤가 아조 말라버리지안는限 나는 아직도 내 바람속에 사는 기빨을 찬미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마음이 傷채기로 애리는 날이라도 언제나 詩의바탕은 日光에저즌 꽃이요 꽃노래여야하리라.

나는 대체 무엇으로 마음을 傷하엿고 傷햇다해야 하는가. 스물네햇동안 내가 記憶해온 五百개쯤되는 얼골, 가깝다면가까운 스무개쯤되는 얼골, 그中에서도 父母兄弟, 竹馬故友, 단하나뿐인 나의 愛人——그들의 까닭인가 나의傷心은? 마지막 愛人마자 나는 흔연히離別했다. 그餘은 물론… 오오 父母兩位 兄弟가파 나의 愛人, 愛人이란 무엇이냐. 솟작새의 山脈처럼 내눈아에게러여 불을래야 불을수업는不治의病懼이냐.

그러나 나의觀念은 언제나目前의現實에선 저쪽이다. 그대가 만일 이러한 規則을 違反하고 내 瞳孔아에 박작 다가설때는 그대는 누구거나 나에겐 絶壁이다. 무서운그거나넘어서거나 안되면 도라서 가야할 絶壁이것이다. 그걸 아러라. 五百개쯤되는 知人의얼골을 내 머리속에서 削除한다음 이제 내 生涯의空中에 참으로 너를구나. 오 永遠의日曜日과가튼 내細路의 春夏秋冬을 나는 혼자 어느方向으로 거러가면 조흔가 내눈아면 이제 生疎한 山川과 曇夜만이 가리어라. 生硬한 岩石우에 (그 無量한 無無우에) 증끼를 휘날리는 至極한技巧의工人처럼 나는 내 暗黑피 日月을 헤치고 내細路의 形體를 색이며거러갈뿐이리라.

낫선 거리우에 낫선 사람들 —그들은 나와 가튼 衣服들 呼吸할뿐 나에게 한번이 握手를 請하는일도 업시 지내가고 지내가서 다시 못오는사람들—— 그들의 이 끈업는 人波속에

나는 내 孤獨과 體溫을 維持하고 그들을 내 衣服처럼 가지고 거러가고 거러가고 거러갈뿐이리라.

이제 나의孤獨은 完全히 나의 멋이다. 결국 썩밥어란 제 아무리 (無量대라도) 희파람. 날리거나, 하—모니카 부러야할무끄러운少女처럼 淸明할것 업일까? (그러나 어떤 나는 너무 아는체하는가부다) 하여간——

나는 어 곳엇는. 徘徊의中心에 한개의円軌을 두리라. 어검 浪漫이라 부르건 地軸이라 부르건 그건 그대들의 自由다.

오늘도 하로의彷徨끝에 내가 疲困한다리를 끌고 어느 빈터의 풀밧이거나 下宿집 뒷房에도라와 쓰러저잇슬때 외갓徬徨와 絶望과 暗黑한것가운데 자빠저 잇슬때 문득 어데지 먼—地域에서 지극히은넘어 손저어나를 부르는듯한氣味. 귀기우리면 바로 거기 잇는듯한氣味 내彷徨의中心과 絶望과 暗黑의中心의 中心에 결국은 내 心臟의中心에 그中心의中心에 七審水海의 內圓의 江물처럼 고여서잇는듯한…… 그 沈默하는것 그 誘引하는것 내 心臟에 더워오는것 그것을 나는 便宜上 내 靈魂의 円軌이라하려라 詩의고향이라하리라 나는 언제나 여 附近을 徘徊할뿐이어라

○

셋길로 셋길로만 헤매이다가 한바탕 가시밧을 희젓고나서면 다리는 풀처 肉體처노혼듯 멋방울이 내려저 바위人틈을 적시고

아무도 업는곳이기에 고이는 눈물이면 손아귀에닷는대로 떨고씨거우자연대를 때먹으며 나는 함부로 솔다롱질 친다.

山새 우는 歲月속에 붉게볼든 山열매는 먹고 가며 헤보면 눈이 금시 밝어오드랑.

이저버리자 이저버리자 히부얀 조이 꽃봉미에 애비와 에미와 게집을 黃昏하는 곳을 故鄕와가튼 나리를 그들의 會話들의 서러운울림을

버리고

이제 사실 나의 靑春은 菊벌을 닮어야한다.

거리 거리 쇠사슬이 나를 반때 가두어도

나오면 다시 한결 날카로워지는 망자!

영원 봉은옷을 다시이편대도 나의 趣味는 赤熱의 砂漠저편에 불타오르는바다!

오— 가리리 가리로다 나의 무수한 暗礁을 무수한 果實처럼 硏磨하며 옮기는 발길마다 돌아리 강은瀑布의 눈알이 별처럼 총총히 무쳐잇다는 모래언덕너머…… 모래언덕너머… 그어디 한포기 크낙한 꽃그늘 부풀어서 푸르른 바람결에 씨치우는 한낫鮮屍로 노일지라도 언제나 나의 念願은 꼿기는 快樂이어야한다.

女流短篇 閑夜月 (二)

張德祚 作
崔根培 畵

의 무거움과외로움은 배암이껍질을 벗듯이 깨끗하게 벗겨지게다—그러나 다움순간 동뒤에 궁인양씨의 가벼운 기척기척을느끼사

『이것보게 하늘이 어쩌면 저러케도 맑은가 바람도 적녀가 움인데』

왕비는 나즉히 이런소리를하고 잇섯다.

웨 그런소리를 하는지 곤전당신도 모르는체 말씨는 잘 닥긴 길위를 굴르는 박회처럼

『참 오늘이 며칠이지?』

그러나 곤전은 결코 물음할 의 대답을 귀기우려 기다리고 잇지안햇다.

『오늘이 금음 팔월금음 아니옵시잇가』

『현숙한 곤전마마』

『착하신곤전마마』

이러케들 찬송해 올리는 내인 무수리 별감이나 정감 무감나부랭이는 말할것도업고 간혹 맛나는 부친 신승선까지

『참 곤전의 마음은 하늘가티 넓소』

이런소리를 해가며 만족한비웃을 더우기까지 곤전은 자기이생을 완성하고말앗다

『착하신 국모마마』

그러나 곤전을 칭찬하는소리가 국내에 노파갈수록 왕비의 따움은 쓸쓸하엿다

당신마음의 간사함을 잘아는그는 허를 깨물어 괴라도 뱉고 시픈 괴로움을 허우의팔로 간신히 남의눈을 가리는것을 생각하면 칭송도실코 엄청빗느것도 실코 그저 초조와 외로움만이 밀물가티 전신을 엄습해오는것이다.

『시샘이라니 질투라니 천녕해선 안될노릇이란말인가』

곤전은 요새 때때로 여가틈 회의에 사로 잡히신다.

당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그래야만 평온하게 살어갈수잇는 환경이 왕비는 몹시 쓰러웟다.

드디어 곤전은 지치시든 방향을 잃어노코 몹소 장지를드 옥엽엇다.

흐녕전 넓은 뜰에 만발한 국화 그리고 그위로 솟가러 흰구름을 띄운 푸른하늘이보이엇다.

저하늘아래 대궐의 담장너머 저푸른하늘아래는 사람들이 정말살아잇는사람다웁게 서로좌충하고 나라에서 시기하고 회나면 성내고 울어주면 울어가며 생활해가고 잇슬것이다.

그러나 담장한겹 어안에놓게 모와 위의라는 탈을 쓰고 죽엄보담더한 괴로움으로 거짓말을 직혀가야하는 여인이 엇지 아니하나

곤전은 두손으로 머리를쥐어뜨드며 어어 어어 소리를내여 울고시픈 발작적충동에 사로잡히엇다

사람한 머리 찌저지라 어방에서 저현실로 저현실에서다시 맹물로 그러고는마당으로혼 보면알려지고 을머나리며 괴로워 …이가 되여 어떠할까

니까』

양씨가 살의울리는 말슴도들 엇는지 안들엇는지 벌써 시선은 푸른한울로부터 뜰안의 국화에게로 옮아잇섯는것이다. 회국화 황국화가 보옥한 향기를 뿜는 뜰에는 고추짱아들이 떼를 지어 들을가른 눈앞을 두리번거리며 날러가고 날러오고 한다.

간간히 짱아들을 위협하듯 봉거리며 심술을 부리는 벌 그러나 지금 곤전이 물끄럼하게 바라보시는것은 그러한것이 아니엿다.

크고적은 국화의 푸른잎사귀에 가리어 양자조차 분명키 어려우나 저뒷편으로 쪼구리고잇는 새빨안백일홍한송이

『남흔래 라다 라다 오스러저 버리는 그신세 어쩌면 내신사와 이다지도 가른고』

그는 망연히 이런 생각을하고잇는것이다. 알아주는이도 업시 지는날까지 혼자타는몸은꽃 의마음—곤전의 떠한 신세를 잘아시는대비회에왕옷(和惡王后)께서는 언제나

『몽중을 보고 참으요.』

하고 위로해주시지만 뜻은 선씨는 아드님인 세자 왕(?)에게도 아무 기대를 갖지 안는다.

자식이란 돌받게나면 그만이라 하지안는가 설혹 동궁이순조로 즉위하여 높은자리에 오른다하자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는무슨 소용이 잇단말이냐.

더위에도흐트러지안코·땀에도지거러지안코·携帶에便利·整髮又容易

婦人들의—진머리부침에!

銃後婦人의몸단장은……먼저整髮에서

아이의 셋트모양에 맛수盛히 使用하는 高節整髮料丹頂チック!

急所急所에 바르는것으로 髮型을 終日保全하고 使用할때에 손에묻지안코 浪費가업스므로 아주 經濟的입니다

그리고 整髮感의高尙함! 香氣가優雅함

紳士의整髮에는勿論입니다

파리—製보다優秀한 國產最高基準品

丹頂チック

各百貨店·化粧品店에서

★一流理髮店·美粧院推獎絶讚 ★政界·財界の名士御愛用

丹頂ヘアーチック 金鶴香水株式會社 1.00 1.60 .65

夏季鷄卵의 出荷에對하야

從來의缺點의改善方法

産業余話

最近京城市場의 卵價의 異常한低落을 示現한것은 需要供給의 原則으로보아 當然한일이라고생각하나 現在此夏季時有의 市勢特히 年年等不新鮮한 理由로 卵價가 夏季時有의 市勢를示하고잇는것은 히 反復하는 改善을 要하는點이라고 생각한다 現在京城市場의 最近의取引市勢는 京城附近業者들의 新鮮卵四貫一箱 十一圓六十錢 遠隔地로부터 送付된 不新鮮卵中其程度가 甚한것 四貫一箱 七圓 即四貫一箱의 差額은 實로四圓六十錢이라는 놀랄만한 數字를 보이고잇다 그리고 新鮮卵은 數量에限이잇기때문에 供給이不足되지만 不新鮮卵은 需要者의 實需戒와 一般消費節約에 依한 需要의 減退로 因하야 거의 업는實情이엇다

가튼 鷄卵이면서도 其新鮮度如何에 依하야 이가티도 相當한 價値에影響을 미처 價格을 左右한다는것을생각하면 그對策을 研究하야 需給할수잇는 利益을 圖하야 努力할것이요 不利益의 解消를 期하는것은 正히 賢明한業者의 取할問題라고생각한다

그러면 그改善의方法은如何한가

其對策二三을드러 業者와共히 研究하야 그改善과 實行과를促進하려고생각하는데 此等은 技術者 業者가 團結하야 共存共榮으로 業界의利益을爲하야 即時改善의實을 나타내도록 共同一致實行하면 될것으로 조금도 困難한問題는 아니라고생각한다

一、夏季鷄卵의 集卵及出荷는隔日로하고 (每日이면더욱조타) 三日以上의 集卵出荷를 絶對로하지말것

(從來는大槪 市日에 集卵하는 習慣이잇스나 夏季와 集卵出荷로서는 不適當한것)

二、반드시 集卵한後出荷할것 (簡易한選卵的檢査도 必要하다)

三、夏季는 組合員二回이相集하야 選卵지말것 (右精卵은 卵의腐敗에 依하야 腐敗의原因이된다)

四、鷄卵은 集卵後 冷凉한地下室等에 保管하엿다 冷却한後 荷造할것

五、出荷는 可及的夜間輸送으로 通風車等을 利用할것

六、塡充物容器는 乾燥한것을使用할것

七、個人出荷는 不規則하기쉽고 또 副業的養鷄를하는 鄕鮮에 잇서서는 一箱을 채우는데 數日을 要하므로 반드시 養鷄組合을 設立하고 統制잇는出荷를 實行할것

大體로 以上과가튼 處理를研究하면 綜合하야 新鮮卵을 出荷할수잇스므로 從來와 가튼 夏季出荷의 鷄卵의 價値가 低落되지 안케되므로 生産者는 勿論 消費者까지도 利益이 되는것이다 此等은 夏季出荷의 缺陷으로 因하야 腐敗卵이 되는것이므로 價値가 下落되는것이다 그러고 鷄卵의新鮮度를 保持하는 方法은 前記와가티 至極히 簡單한것이다 오직 各業者 各組合員의 注意와 取扱如何에 依하는것이므로 꼭 實行에 移하기를 바라는것이다.

産業

綠肥增産을目標로 種子配給을統制

最高價格을定하는同時에 朝鮮內供給을確保

昭和十一年에 確立한 第二次自給肥料增産計畫에 依한 綠肥增産은 昭和二十年 同計畫完成時 十二億八千萬貫(反當二十九貫)을 目標로 年反當 九百匁의 增産을 圖하고잇는데 既報한바와가티 成績이 甚히 不良하야 時히 今年가튼해는 現狀維持도 不安을 感할程度로 이래서는減少할憂慮까지잇서 非常時下 販賣肥料의 統制가 强化되여 自給肥料의 重要性이 益益加重되여온 今日에 잇서서 農林局에서 其對策에 腐心하고 잇는데 綠肥減退의 主要한 理由는 種子의配給이 圓滑치못한데잇슴에 鑑하야 農林局에서는 積極的으로 種子의增産을圖하기로 決定하고 最近各道로 이뜻의通牒을 發하고 다시나아가 헤아리벳치 種子의 統制를考慮하고잇다 벳지種子는 內地의 自給肥料增産으로 顯著히需要가 增加하엿기때문에 最近에는 九十圓乃至百圓이라는 異常한高價를唱하고잇서 朝鮮內農家의種子入手에顯著히困難을感하야 벳지 栽培面積의減少를 不免한다는것이 今日의狀態이다 따라서 農林局에서는種子의 輸移出에 許可制를設定하는等 或種의 制限方法을講究하는同時에 最高價格을 限定하야 不當引上을 防止하는同時에 朝鮮農會로서는 一定限度의增産計畫을遂行에 支障이업는程度를 在庫로두는等의 對策을 考慮하고잇는것인데 朝鮮內 供給確保를目標로 朝鮮이 萬苦統制를實施하면 內地의影響도크므로 農林省과 折衝한後 決定될것이다 또헤아리벳치種子는 採取後三年부터라야 가장發芽成績이 良好하므로 朝鮮內에서 生産된 種子는 一段이것을 農會에 收納하고 順次로市場에 내놋는다는農會在庫案은一石二鳥로서 期待되엿섯다

化成肥配合 統制追隨는不要

奸商의出現만警戒할뿐

農林省은 化成肥料及 配合肥料의 統制實施를 決定하엿는데 朝鮮에서는 現在 大體에잇서서 統制가 實施되여잇스므로 政府의統制가 實施된다고 하드래도 朝鮮으로서는 別로 이에追隨할 必要는업고 오히려 朝鮮이行하고잇는 方法이 도리혀 內地의 見本이 된셈이다 即 朝鮮에서는 配合肥料는 一切 朝鮮農會에서 製造하고 또 配給하고잇스며 一般市販은 價格의點에서 收支가 맛지아니하므로 거이업고 또 化成은 朝鮮窒素가 硫燐安及 硫加燐安을 製造하고잇스나 면치 內地의製品도 얼마간 使用되여 잇기는하나 取締가 嚴重하기때문에 奸商物의橫行의 餘地가업서 이것저것모두 實際에 잇서서는 問題삼을程度의 弊害도 이러나지안흘모양이다 그러나오직 最近 硫安其他重要肥料의 統制가 整備되여가 稀薄하게될 關係上業者는 자칫하면 統制外의 化成肥料로 向할傾向에잇고 農民의 無智를 機會삼고 暴利로 賣却하는等의 惡質業者가 現出하지안흘것도아니므로 農林局에서는 그點을嚴重히 注目하고잇는데 內地側이 統制를 實施한다고하면 朝鮮에도 自然조흔 影響이 미칠것이라고 期待되여잇다한다

完州堆肥增産督勵

【全北支社發】 完州郡農會에서는 長期戰에 對應하야 管內全農家로 하여금 金肥使用을 禁하고 綠肥栽培를獎勵하기爲하야 目下全職員이 振興部落에 分擔出張하야 指導督勵中이라는데 農閑期를利用하야 貯蓄採取等을 勵行케하여 堆肥增産에 拍車를 加할 計畫이라고한다

完州秋蠶種配定

【全北支社發】 本年度春蠶種은高價係及 繭價暴落으로因하야飼育者側에서는 賣渡를不好하는狀態엿는데 秋蠶種은 比較的好轉하여 完州郡蠶業係에서는 增加飼育을 一層徹底하게 爲하야 掃立一萬三千二百枚를 管內蠶業家에 配定하기로하고 八月十七日 道蠶種業組合聯合會에서 蠶種을 引渡하게되엿다한다

咸南果樹凶作

比前年四割減豫想

【咸南支社發】 昨年中에稀有의豊作을 맛난 咸南道의 果樹栽培은 今年에 들어와서는 開花期의旱魃 成育期의 長霖等으로 전혀 그 結實狀態가 不良하야 四割以上의 大減收를 豫想케하고잇다 道農務課의 收穫豫想高를보면 今年度 收穫高는 二百六十一萬八千五百貫으로서 昨年度의實收高 四百八十萬九千貫에 比하면 一百四十七萬七千貫이나 減少되엿는데 主要產果는 凶作이 豫想된다

全北道穀物商會集 稻共同販賣懇談

【全北支社發】 全北道農會에서는 八月十日午前十時부터 各地穀物商組合長 二十七名을 道會議室에 招請하야 稻共同販賣에對한 懇談會를開催하야 서로意見을開陳하고 도한이에對한 關係當局者들의 說明이잇섯는데 그內容은다음과가다한다

說明事項

一、內地에잇서서의 朝鮮米의需要(山本穀物檢査所長)

一、本道産米改良施設槪要(影澤農務課長)

懇談事項

一、正租共同販賣에關한件

一、乾燥不良正租賣買에關한件

景品附畜牛大市開催 寧邊郡農會에서

【寧邊】 寧邊郡農會에서는 年例에 依하야 景品附畜牛大市를左記와如히 開催한다는데 매우盛況을 일우리라고 豫測된다

◎畜牛大市開催場所及期間

一、月林家畜市場 自八月八日至同十日

二、寧邊同 自八月十二日至同十四日

三、八院同 自八月十八日至同十九日

四、石倉同 自八月二十六日至同二十七日

五、泰平同 自八月三十一日至九月一日

六、北新峴同 自九月三日至同四日

七、球場同 自九月五日至同六日

八、東倉同 自九月八日至同九日 (但開市日이雨天이면順延함)

◎畜牛大市景品

一、寧邊家畜市場景品
一等一人 金三十圓
二等二人 金五圓式
三等五人 金一圓式

二、月林 八院 石倉 泰平 新峴 球場 東倉 各家畜市場景品
一等一人 金二十圓
二等二人 金三圓式
三等五人 金一圓式

▲景品券交付方法及抽籤期日

一、成牛賣買者 各二枚式、犢牛賣買者 各一枚式贈呈

二、各市場大市終了日 午後六時抽籤實施

同當農會에서는 前記大牛市를契機로 種牡牛、種牝牛、一歲未滿의 犢을 多數히 購入하고共히 農會所有의 指定價及生産費을 多數히 販賣한다고한다

暴利取締令에對한 講話會를開催

【漣川】 漣川郡에서는 지난八月五日午前十時부터 漣川中央普通學校大講堂에서 本郡守 勸業課長 京畿道廳의 千田囑託以下 部內各營業者百餘名을 集合시켜 暴利取締令에對한 說明을徹底히 指示하고 講話會를마첫다한다

穀用叺配給統制

市價安定을期하야 豫約販賣를開始

農林局에서는 穀用叺의配給이 年年圓滑을缺하야 局部的暴騰을 招來하는等 市價의安定을 缺하는것때문에 增産獎勵가 豫定과가티進捗되지안는現狀에鑑하야 本年度부터는 朝鮮에納入하는 肥料叺同樣으로 豫約賣買實施하게로方針을 決定하고 不遠産業部會로부터 穀物協會에 提議하게되엿다 豫約賣買의方法은 農家로부터의 買入價格 穀物協會에의賣渡價格及叺會社의手數料를 一定하고 市價의安定을 圖하는것으로 價格은大體에잇서서 肥料叺과의關係로 相當引下되여 農家로부터 廿五錢가량으로 買入하야 三十錢가량으로 穀物協會에 納入하도록하게될모양이다

咸南苹果無檢搬出 嚴重取締

【咸南支社發】 咸南道의苹果에對하야서는 昨年十一月一日부터檢査를實施하고 搬出하는것에對하야서는 一切檢査를받지안흐면 搬出을 못하게되엿는데 그것을 어기고 檢査를받지안코 搬出하는것이 잇서 咸南道에서는 이를 嚴重取締하기로 하엿다한다

平南道畜産現況

【平南支社發】 平南道農務課에서 調査한바 平南道의 畜産의 現狀은如左한바
牛 一四四、九七四頭
馬 四、七九二頭
豚 八〇、〇〇五頭
鷄 六二六、九二五羽
緬羊 一、七八一頭
이것을 昨年과比較하면 各各
牛 四、〇一七頭
馬 二頭
豚 一、〇九三頭
緬羊 一、〇五二頭
鷄 一七、三三二羽
이 增加하엿는데其中 緬羊의激增이 눈에 띄는바이다

蘭谷牧場產馬賣却

금번 李王職에서는 蘭谷牧場產乘用馬三歲馬 合計十九頭를 今月十八日午後四時 江原道廳에서 競賣에 付하야 賣却하기로되엿다한다

農山漁村의 實施事項

農林局長·各道知事에通牒

(經濟戰强調週間)

來八月廿一日부터 一週間 銃後國民生活의改善合理化를目標로 實施되는 經濟戰强調週間에際하야 農山漁村에서 一層具現徹底할 諸項目에 關하야 九日附로 農林局長으로부터 各道知事에게依命通牒을發하엿다 即다음과가티

一、週間中 特히必行케할事項

生産의增加、消費의節約上 關係기픈 左의例示程度의卑近簡明한 一、二의事項을 各各地方의 實情에應하야 選定하고 반드시期間中 其遂行을期케하는同時에 그實績은 郡、島、邑面의營農營漁의改善、農山漁村振興上 成績에現實的으로 反映케하는等의方法을講究하야 週間實施의趣旨를 一層徹底케할것

(例示) 部落振興會、靑年團等協力下에 各戶에必行케할事項
堆肥舍 或은堆積場의設備 又는改善
液肥溜의設置 又는便所의改善
灰舍 或은灰置場의設置 又는改善
牛、豚舍의改善
山野草其他의 堆肥原料의採取
婦人에게 必行케할事項
白衣의染色
節米貯蓄

二、常時指導 又는實行케할事項

次의諸項目에對하야 常時不斷으로 指導實行케하는外에 指導者、地主、企業家、有力者其他部落幹部等指導的階級에 잇는者의 實踐躬行을 促進하야써 一般의 實行을 促進徹底케할것

(一) 生産의增加에 關한事項

(가)營農營漁의 改善에 關한 技術的又는 經營上 指導를 一層强調케하는同時에 空閑地、畦畔、山麓等의 利用에 對하야 또一段의 努力을 加하고 農作物의 增收、副業品의 增産等에 全家勤勞의 實을 擧케하는것은 勿論時局軍需와 食用農、林、水産物及加工品의 增産、家畜類의 增殖에 對하야서는 關係團體豫算에 一層그經費를 計上하야 極力生産의 增加에 努力케하며 更生共勵部落及 更生指導部落에 잇서서는 其增産計畫을 部落이나 또는 更生計畫의 內容에 添加하야 指導督勵의徹底를 期하는等 國策遂行上 遺漏업는 指導를 講究할것

(나)生産의增加、消費의節約上時에 關係기픈 堆肥、人糞尿、鷄糞、灰等의 增産 又는貯藏의 設備의 設備改善及綠肥의 栽培、山野草의 採取等 自給肥料의 增産에 對하야도 特別한 指導督勵를 加할것

(다)婦人은 勿論老幼者에게 對하야서도 ...

(가)農山漁村의 各種團體에서 使用하는 天蠶又는 品評會等의 賞品으로서 授與할 物品은 一切이를 保留케할것

(나)農山漁家에對하야 此際 色衣의 着用을 極力獎勵하는同時에 衣類、足袋、洋襪等의 保存愛用、不用品의 交換利用等에對하야 特히 注意를喚起케하며 不得已한 境遇外에는 新調를 保留케할것

(다)漁家에서 使用하는 漁網、帆布、綱의保存에 對하야 留意케하며 共同修理等의 方法에對하야 一層考究케할것

(라)靑少年에 對한 木綿制服의 共同購入等은 此際保留케할것

(마)自家生産의 棉花는 될수록 共同販賣케하며 自家消費를 極度로 節約케할것

三、고무類의 消費節約에 對하야서는 可及的 고무靴、地下足袋의 使用을 保留케 하며 절신으로 대신케할것

(4)石油는 勿論燐寸其他의燃料에對하야서도 極力節約케할것

(5)購入肥料를 極力節減케하며 또各種團體 地主等의 共同購入의 斡旋을하는 境遇는 購入者의 營農狀態에對하야 調査하야 ...

(二)消費節約에 關한事項

(가)金屬及木材類의 消費節約에 關하야 農山漁村의 各種團體의 事務所、事業所의 新築、增改築은 不急한것을 避하고 一切이를 保留할것

(나)農山漁家의 新築又는增築은 當分間 此를 保留케할것

(다)金屬、皮革類를 使用하야 製作한 農具、漁具等의 購入은 必要에 限定하야 購入하게하며 保存、修理에 힘쓰게할것

(라)金屬製品으로써 作製할 農機具、其他는 可及的 代用品으로써 補充케할것

(마)木材、麻布、縄其他木綿、麻類의 消費節約에 ...

(三)貯蓄의 獎勵에 關한事項

農山漁家의 貯蓄은 生産增加에 依한 收入의 增加와 消費의 節約으로 因한 剩餘를 ... 共同販賣의 代金、共同購入 ... 貯蓄의 實行에 努力케할것

無砂米運動과…… 混砂精米의意義 (上)

搗粉有害說의根據

無砂米運動者는 榮養研究所長 佐伯博士의 搗粉有害實驗을 방패로 搗粉을使用한 精米는有害하다하야 混砂精米禁止의 運動을 行하고잇는데 國立榮養研究所長 佐伯博士의實驗은如左하다

『硅酸을 主成分으로하는 搗粉房州 白土에對하야서는 먼저實驗한結果 有害한것이 判明되엿는데 搗粉炭酸칼시움 主成分에對하야 其害否를 實驗하여보앗는데 其方法은 體重五〇瓦의 鼠에 Q、十五瓦 三〇瓦의 炭酸칼시움 搗粉外에 飼料의混合을달리하야 주엇는바 十五瓦、三〇瓦 炭酸칼시움을 만히준것일수록 成長이 빠르지못하고 그中에는 白尿를洩漏하는者까지도 엿섯고 解剖한結果 膀胱에結石을 發見하엿다』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給與하면 體重十五貫되는사람에게 一日炭酸칼시움 搗粉四十五匁(大勺)乃至四五〇匁(大合)을 給與한것과 同一한것으로 米대서에 炭酸칼시움을 ... 結果의實驗이다 無砂米運動者는 右搗粉有害說을根據로 ...

混砂精米의意義

現在米의搗精에 使用되여잇는 搗粉에는 硅酸及其類類를 主成分으로하는것과 炭酸칼시움을主成分으로하는것의 二種類가잇는데 ...

無砂米運動의眞相

米와 精米機와 搗粉은 不可分의 關係에 잇는것이므로 이 三者關係中 精米機와 搗粉의關係를 切斷하려고하는 運動이現在無砂米運動인데 最近無砂米運動者는 混砂米는 洗米할때 米의 成分을 流失하는것이 크다는것을理由로 使用을 排斥하고잇는데 米에 附着하는 程度의 搗粉 ...

精米禁止請願을 提出하거나 或은 地方官廳에 混砂米禁止運動을 繼續하여오는것이다 그러나 厚生省에서는 其不當實驗이것을 認定하고 適當한機會에 炭酸칼시움搗粉이 米에附着하는 程度에 잇서서 實驗을다시한다는 意見을 流布하는것을 早計가아니냐는 意見이 잇는것이다

炭酸칼시움을 使用함에 여러가지으로 모든가 經濟上必要로생긴것이다 그中硅酸質의小砂는 體內에드러가서 곳溶解되어 吸收되는 性質을 가진것이므로 兩者는 全然 保健上의見地를 달리하는것이다 그런데 無砂米運動者는 이兩者를混同하야 混砂精米라고해서 搗精事情에 認識이 不足한 一般民衆을 嚇着하고 잇다

酸칼시움搗粉의 量으로는 오히려人體에 有效로 無砂米가 洗滌 必要가업스면 炭酸칼시움搗米도 洗滌을 要치안는다 그런데 搗精이 過多할수업는 問題는 米搗精機이다 明治時代의 搗精機에서 一步나아간 精米機의 普及에 依하야 限이잇는 精米業者를 相對로하는 精米機의 販賣는 거이 硬塞되엿다 지금까지의 精米機는 全部砂又는 炭酸칼시움을 搗精劑로 使用하고 잇섯는데 大正年代에 드러서 搗粉을 使用치 안는 所謂無砂精米機가 考案되엿다 그러나 搗精能率이 나지안흘뿐 아니라 搗精作業中 高熱이 發生하야 粹米가 增大하기때문에 精白度가 만히떨어지게 가티 無砂米로는 所謂混砂米와 精米와 가티 하여지지안흘뿐아니라 熱로 因하야 米의成分에 變化을招來하고 米本來의 食味를喪失하는 結果 맛이나빠진다 그래서無砂米運動者의 宣傳에도 不拘코無砂精米機의 使用은 遲遲하고不振한 理由이다 如斯히하야 無砂米機에서 一步나아간 胚芽米機라고해서 精白度가 노픈그리고 胚芽의 殘存量이 만흔米를 짓는精米機가 考案되엿스나 이것도 無砂米가 缺點으로하는바 依然改良되지안코 오직胚芽의 殘存量이 無砂米機에 比하야 만타는 無砂米機와는 紙一重의 差異를가진 精米機로서從來의精米機가 搗粉을 使用하야 低價로 훌륭하게되는 白米나胚芽米로搗精할수잇는이上 此等精白米가만터라도 外見도조치안코 食味가 떠러지는米밧게 는搗精할수업는精米機는 此等의 製作者의宣傳에도 不拘하고實行이不良하다한다

商品市勢

十二日

▲果實類

苹果(國光)	咸鏡四貫	[illegible]
〃(紅玉)	〃	[illegible]
〃(祝)	〃	[illegible]
〃(倭錦)	〃	[illegible]
桃(白桃)	[illegible]	[illegible]
〃(小林桃)	[illegible]	[illegible]
〃(土用)	[illegible]	[illegible]
〃(第水)	[illegible]	[illegible]
바나나	[illegible]	[illegible]
梨(長十郎)	[illegible]	[illegible]
〃(市原)	[illegible]	[illegible]
西瓜	[illegible]	[illegible]
眞瓜	[illegible]	[illegible]

▲農產加工品

乾木	[illegible]	[illegible]
柿餠	朝鮮産	[illegible]
乾栗	朝鮮産	[illegible]
椎茸	內地産	[illegible]
乾瓢	朝鮮産	[illegible]
胡麻子油	內地	[illegible]
荏子油	朝鮮産	[illegible]
棉實油	內地	[illegible]
絞油	內地	[illegible]
乾蕨根	[illegible]	[illegible]
고사리	朝鮮產	[illegible]
干柿	[illegible]	[illegible]
干瓢	[illegible]	[illegible]
番椒	[illegible]	[illegible]
麥粉	各地	[illegible]
同	京城	[illegible]
三等粉	[illegible]	[illegible]
日の出印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澱粉	[illegible]	[illegible]

▲穀用叺及繩

指定價	天地	
京畿	一枚	[illegible]
群山	〃	[illegible]
忠南	〃	[illegible]
慶北	〃	[illegible]
慶南	〃	[illegible]
榮山浦	〃	[illegible]
實價 全南	〃	[illegible]
京畿	〃	[illegible]
繩	[illegible]	[illegible]
穀用叺	[illegible]	[illegible]

▲穀物

玄米三等	呼値 一石	[illegible]
白米一等	〃	[illegible]
大麥	〃	[illegible]
小麥	〃	[illegible]
大豆	〃	[illegible]
小豆	〃	[illegible]
粟	〃	[illegible]
胡麻	〃	[illegible]

▲家畜類

大豆粕	〃	[illegible]
荏子粕	〃	[illegible]
鷄卵	一貫	[illegible]
生鷄	〃	[illegible]
生豚	〃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豚毛	一斤	[illegible]
羽毛	一貫	[illegible]

▲家畜飼料

粉末配合	[illegible]	[illegible]
産卵用	[illegible]	[illegible]
中雛用	[illegible]	[illegible]
成鷄用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高粱	[illegible]	[illegible]
大麥	[illegible]	[illegible]
麩	[illegible]	[illegible]
骨粉	[illegible]	[illegible]
魚粉	[illegible]	[illegible]
三井成鷄用	[illegible]	[illegible]

▲肥料

石灰窒素	[illegible]	[illegible]
硫安	[illegible]	[illegible]
過石	[illegible]	[illegible]
燐酸加里	[illegible]	[illegible]
硫酸加里	[illegible]	[illegible]
大豆粕	八月限	[illegible]
胡麻油粕	[illegible]	[illegible]
加燐安	[illegible]	[illegible]
硫化燐安	[illegible]	[illegible]

▲農藝藥品

砒酸鉛	一封度	[illegible]
改良石灰	[illegible]	[illegible]
除虫菊	[illegible]	[illegible]
結晶硫酸銅	[illegible]	[illegible]
硫黃粉	[illegible]	[illegible]
生石灰	[illegible]	[illegible]
驅虫用煙草粉	[illegible]	[illegible]

더운때에——

清潔과健康을 가지게되며 秋冬이되더라도 感氣에걸리지 안는 健康美의皮膚를 만들려면 最高標準品 ミツワ를 日常쓰시도록 하는것이 가장쉬운方途입니다

ミツワ石鹼

世界에빗나는優秀品質

東京日本橋兩國 丸見屋商店

百餘戶借家人相對 爆彈的家賃引上

時局을沒理解하는家主라고 平南道保安課서警告?

【平南支社電話】 숱한사람의 안정을위하여 국가에서는 국책으로 서울가를 억제하고 지세전세등까지도 통제를하려하는때에 그 암주등을하여 폭리전세를 어샙황이나 급작히올린 가주가평양에나타나 사회의지목을 사고잇다 즉평양자 기근불급(不急)토목건축공사의 중지명령으로 세로운건축은 거이불가능한데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평양의 인구는 날로증가하여 평양의 주택난은 미증유의 심각한경지에 이르러잇는가운데 평양부 륙정(六町)의 소림(小林)씨 미인(美人)씨는 자기의 집에대하여 집세를 올리겟다고 백여호 차가인에게 통고한 ...

國民精神總動員 揷橋聯盟發會式

【揷橋】 충남서산군 외남면 ... 에서 지난구일오전구시부터 성대한 발회식이 거행되엿는데 ... 임원은 다음과갓다

▲理事長 ... ▲顧問 ... ▲理事 ... 以下略

淸州郡農會臨總

【淸州】 청주군농회에서는 오는 십사일 오전열시부터 동농회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는바 부의사항은 다음과갓다한다

一、十三年度歲入出追加更正豫算의件

一、十三年度事業計劃變更의件

一、農會長辭任의件

斗村小學增築費 八千圓惠擲

鑛業家小林氏美擧

【扶餘】 부여군 ... 두촌(斗村)면 ... 에잇는 소학교는 ...

鰮豊漁의連續線

八日現在 二十七萬樽

漁大津、淸津近海에大群襲來

【淸津】 정어리어획은 ...

金山道路豫算不變

【新義州】 ...

西公園强盜事件

마침내無罪判決

十二日、證據不充分으로

【淸州支局電話】 청주읍내 서공원(西公園) 강도사건은 그동안 청주법원지청에서 여러번공판이 열렷는데 ... 송병화(宋炳化)에게 ... 드디어 무죄판결이 내리엇다 ...

魔의白馬江에서 姉妹俱沒의慘劇

父母따라水泳왓다가

【白馬】 근일은 일기가 ...

四個里住民들이出動 墳墓發掘로騷動

主謀者는晉州署서取調

【晉州】 ...

咸安地方서도 墳墓發掘

【咸安】 ...

工業用水로適當한 地下水를發見

龍岡郡住龍里에서

【龍岡】 ...

安東大正普校同窓會

【安東】 ...

普成學院學藝會

【晉州】 ...

聖山小學校勤勞隊 兩處에橋梁架設

一般住民도稱讚藉藉

【咸安】 ...

貴州地方郡畜產會

【貴州】 ...

貯蓄報國講演會

【舍人】 ...

犯罪에도戰時色!

지난一個年間慶北道內犯罪

比前年二千餘件減

【慶北支社電話】 사변이후 사회의 ...

	今年度	前年度
殺人	四九	五一
放火	二三	一六
强盜	三三	四三
竊盜	五、〇三二	五、六五六
詐欺	一、四九九	一、九七四
恐喝	五五	五四
橫領	七三四	九九七
賭博	一、九一五	二、三四一
其他	三、三二〇七	三、八〇七
計	一二、六三七	一四、九三九

馬糧勤勞奉仕 山城鎭서盛況

【山城鎭】 ...

龍山墓地買收에 收用令適用準備

【平南支社電話】 평양부에서는 ...

重要한兩鑛石 成川에서發見

【平南支社電話】 ...

好評의大邱苹果

年內二十五萬箱을目標로 上海等地輸出에邁進

【慶北支社電話】 ...

陸上競技大會 廿日秦平小校에서

【秦平】 ...

水鄕景物帖 ①

"후리그물로" (漢灘에서)

長篇小說 林巨正 【148】

洪碧初 作　金熊超 畵

피리 (廿九)

...

(民)(需)(制)(限)(物)(資)(解)(剖) ①

用途·需給·代用 各商品別內容

近衛內閣은 六月廿三日 軍需의第二期作戰에對應할 物資動員計劃의大綱을 發表하는同時에 右動員計劃遂行에따라 一般國內消費制限의 對象이될物資로서 如左한卅二品目을 指定하엿다

銅材、銑鐵、金、白金、銅、黃銅、亞鉛、鉛、錫、닛켈、安質母尼、水銀、아루미、石綿、木材、重油、揮發油、生고무、棉花、짤푸、紙、皮革、羊毛、石炭酸、硝酸、硝酸曹達、加里、滿俺鑛、石、그리고此等의物資는 이미事變以來 生產力擴充、國際收支適合의『슬로간』下에 極力輸入을制限하는同時에 國內需給의 調整을圖하야 各種의配給統制及 消費制限을實施하야써 軍需의 圓滑을期하야왓스나 今年에드러와 一方輸出의 振興에 努力하는 軍需品의需要가 激增함에따라 輸入을極度로制限하는同時에 從來輸入된것도 民需에 消費시키지안코 全部軍需에 充當하여야되게되엿스므로 이에 輸入輸出商品의 强力한民需의 使用制限을 强行하게되엿다。

商工省에서는 이卅二品目中 이미金、白金、銅材、銑鐵、鋼材、重油、揮發油、皮革、棉花、羊毛、米材、고무、鉛、錫、亞鉛、닛켈、安質母尼等十七品目에對하야 輸出入臨時措置法에依한 使用制限의 省令을 公布하고 그의徹底的消費制限을 勵行하고잇는바 殘餘品目에對하야도 省令에依하는가 乃至行政的方法에依하야 民需消費를極力制限하기로하엿다。以下에此等商品은 從來如何한 用途를가지고 또如何한需給狀態에잇섯든가? 또今後에如何한消費制限을하게되엿는가 或은그代用品은如何한가에對하야 檢討하여보겟다。

棉花

脫法行爲續出 綿布輸出不振

棉花는 一般衣服用以外에 軍需用綿製品의原料로서도 不可缺의것이며 今般의使用制限品目에 棉花가 드는것은 軍民需制限을 하야軍需에轉用한다는것보다도 輸入을 制限하야 海外支拂을 減少시키려는趣旨에서 나온것이다。

從來 日本은印度棉、米棉、支那棉、埃及棉等을 每年約 一千四五百萬擔 金額으로는八億五千萬圓의 棉花를輸入하고 이것으로 一個月平均三十四萬擔의 綿絲를만드러 이中內需로 國內用의綿製品을 만드러 海外에輸出하야 約六億五千萬圓의 輸出額을보이고잇는것이다。따라서이八億의 輸入과 六億의輸出을보면 約二億의輸出入差額이 이國內消費에依하야 그만한輸出을 보고잇는것인만큼 이國內用을制限하야 輸出製造에充當한다면 相當한支拂勘定으로될것이다 이點이今般의 國內用綿製品製造禁止의目標이다。그러나

事變 發生以來、現在와가티 全『스·파』使用이라는 徹底的綿業政策을 取하기까지에는許多한條件이잇섯다。卽 事變發生과 同時에 棉花의國內消費量을二、三割程度制限하야 棉花輸入數量의 一割程度를抑制하려고 政府에서는 昨年十月에 綿絲의生產을 一個月三十四萬擔에서 二十萬四千擔으로하엿는데 그後 十二月에는 다시棉花의 輸入減少에따라 二十七萬五千擔程度로 減少하게되엿다。그러므로 政府에서는 이二十七萬五千擔中의 輸出用十七萬擔과 軍需及特殊用五萬擔을除外하고 殘餘의 五萬擔에 三割程度의『스·파』를 混入하야 이것을 七萬擔以上으로 늘이엇섯다。(스·파混用規則은內地에서는 昭和十三年一月一日施行)

× 綿業調整協議會에서 立案된 六月의綿絲生產數量은 如左하엿다。

輸出用綿絲 [illegible]擔
國內用綿絲 [illegible]擔
內譯 純綿絲(軍需及特殊用) [illegible] 混用綿絲(混紡綿絲) [illegible]

輸出 綿製品原料로서는 七萬五千擔(十二年度의 輸出綿布綿製品을綿絲로換算하면 十八萬九千擔)을確保하고 적어도 輸出에잇서서는 二十五億平方碼를 確保하려하엿다(十二年度는 二十六億四千平方碼) 그런데 綿絲布의輸出은 意外에 不振하엿슴을 [illegible]

月에는 前年同期에比하야 一割減少하야 三十四萬擔이 되엇스며 [illegible] 輸出用綿絲와 [illegible] 國內用綿製品의 加工制限에關한件

爲先 從來의原料輸入配定、生產配定、加工制限 [illegible] 輸出配定을 廢止하고 自由貿易을 許하는同時에 內地需要品을 [illegible] 制限 [illegible]

販賣 하는것을 禁止하는同時에 [illegible]

一、綿製品의販賣制限에關한件
一、綿製品의製造制限에關한件
一、綿製品의加工制限에關한件

今年棉花共販價格 基準變更코 引上

輸入採算、大阪市勢와는無關 綿布市勢로逆算할듯

朝鮮內紡績會社 朝鮮以外서는 原棉求得難!

朝鮮內의 紡績工場은 全體로 二十二萬錘의 設備가잇고 純綿布를織造한다드래도 七十七萬擔의棉花가 必要하야 如左한여러 가지境遇가 考慮된다

一、二十二萬錘를 全部動하면原棉七十七萬擔이必要하다

一、朝鮮의綿布는 旣往에約五割을 圓滑需要內로 輸出하얏슴으로 五割操短을하면 三十八萬五千擔의原棉으로足하다

一、朝鮮內需要의 綿絲布는太番手의것이 만흐므로 印棉約五割의混紡이 必要하고 스·파를 三割混紡하면 十三四萬擔乃至十九萬擔의 朝鮮棉花가잇스면 조타

그러나 何如間 朝鮮內의紡績工場은 十三四萬擔의 棉花는朝鮮內에서 買付하여야겟는데 棉作指導는 農林局側으로서 될수잇는 대로 棉花를 高價로사달라고希望하고 朝鮮內紡績으로서도 原棉을 朝鮮以外에 求할수업스므로 結局은 農林局側의 希望대로 追隨치안흘수업다 昨年까지의 棉花共販은 原棉의輸入採算 或은 大阪市中市勢를 基準으로하얏스나 今年은 綿布市勢로부터 逆算하게되지안흘가 보고잇는바 오래동안 金巾一尺이 棉花一斤市勢와大凡가튼等의 事例도잇다

朝鮮의過剩棉花

輸出綿絲布와『링크』치안는다 特用棉及綿絲布로供給

別項과가티 今年의棉花는 共同販賣의價格을 될수잇는대로引上하야 自家消費를 抑制할려고 四十萬擔의棉은 共販에出廻될터이오 約二十萬擔이 남을터이다 이것은 特用棉及特用綿絲布로서 여러가지方面에向하고 輸出綿絲布와『링크』치안흘것가타 이特用棉及特用綿絲布로서의 原棉의需要만으로도 二十萬擔이 超過되는터로 以上과가티 朝鮮의棉花는 輸出綿絲布와는 全然링크치안흘것임으로 共同販賣의價格도 輸入棉花의採算과는 全然無關係라한다

棉花同業協會 正式創立

어미計畫中이든 全朝鮮綿業者의團體는 正式으로 創立케되엿다 團體名은 朝鮮棉花同業協會라고 稱하고 朝鮮產棉花의增產助成과 綿絲業者의 連絡協調를 圖함을目的으로하고 本部를 京城에 支部를必要한地에 設置케로되엿는데 會長에는 元慶尙北道知事 岡崎哲郞氏가就任하엿다

貿易巡回座談會 北鮮各地서開催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對中支貿易의 積極的振興을 圖키爲하야 輸出好適品의 輸出振興과 貿易實務의普及을 圖코저 左記日程에 依하야 貿易巡迴座談會를開催 總督府商工課 外務部 朝郵 鮮銀 鐘紡스레이等으로부터 關係者가 出席하게되엿다한다

九月十一日 元山 十二日 咸興 十三日 城津 十六日 羅津 十七日 雄基

硫安中央組合 今月中結成

農林局에서는 今肥料年度로부터 中央配給統制組合을 正式의것으로 하는同時에 內容의充實을圖하고 名實共히 肥料配給統制의 中央機關이 되게하고저 關係方面과 折衝을 繼續하얏는데 旣報와가티 關係者間의 意見이 一致되엿스므로 本月中에 正式發會의手續을 取키로되엿다 從來의 中央配給統制組合은 單只懇談會式의것으로 따라서 何等統制力을 가지지못한 背後의存在이엿스나 今回는 이것을改正하야 正式의것으로하는 同時에 組合員個個의 配給區域及月別配給量도 協定하야 配給의圓滑과 合理化를圖케하려는것으로 配給區域及 月別配給量은 目下朝窒을 中心으로 日產商事 三菱其他組合員間에 豫備交涉을 進行하고잇고 二十日까지에는 成案을 어더 農林局의 諒解를求하게되리라한다

朝鮮도資金調整强化

今月中旬內地와同時施行! 計畫資本은去益制約

臨時資金調整法의 强化에다라 朝鮮의 資金調整도 去益强化할 必要가생기여 政府에서는 昨年事變以前에 實施中인 資金調整法을 强化하기로 決定하고 朝鮮도 內地와가티 八月中旬施行을 改正하고 直時施行할터인데 改正의要點은 以下와 갓다

一、會社의 新設、增資로 從來五十萬圓以上이든것을 二十萬圓以上으로한다

二、設備資金 從來十萬圓以上으로되여잇든것을 五萬圓以上으로한다

그結果는 會社의 新設或은擴張에 必要한 資金需要等에 거의 모두 相當한制限을 加하게되엿다

朝鮮米의評價를 實質以下로虐待

朝鮮米의 重要性은 戰時體制下의帝國食糧政策上 不可缺의것으로 認識되여잇스나 아직그價格이內地米보다 훨신 下位에잇서 實質的으로는 虐待되고잇는데 今次의 大阪府의 朝鮮米小賣價格의 不當抑壓도 此間의事情을말하는것이라 穀檢調査課長 廣田泉氏는 右에關하야 如左히말하엿다

近時朝鮮米의 原料는正租檢査의 徹底化에 依하야 자못向上되어 優良品으로되어잇는데 아직도 朝鮮米의 原料는米改良品이라는先觀念이 强하야實質價値以下로 評價되고잇는대 內地의小賣價格을보면(大阪)仁川產白米一升에當二十二錢五厘의 境遇에 이것이朝鮮產玄米를 原料로하야 精白한것이면 二十三錢五厘이다 이것은朝鮮產白米의 原料는低價인것을 混合한다고 認定하고 가튼製品이라도 價格이低位에잇는것이다 勿論이것은朝鮮內의精米工場이 發達한結果生產費가低下된것을 말하는것으로朝鮮精米工業의 慶事라 하겟스나 그와同時에 原料도 玄米와가튼 檢査에依하야 向上되고잇는事實을 認識하여주기 바란다

加奈陀冬小麥豫想

【오다와十一日發】加奈陀政府統計局은 七月末現在의 收穫豫想을如左히發表하엿다

收穫豫想 二〇三七〇〇〇〇부셸

白米問題로 朝鮮側抗戰

無反省이면不賣?

大阪府의 朝鮮白米의不買、八分搗米의奬勵問題는 其後益益擴大하야 過般來齊藤幹事長 橫山理事가大阪에가서 그阻止를 猛烈히運動中이던바 大阪側의態度는 자못强硬하므로 朝鮮穀物協會에서도 이에應戰하기로하고 大阪에잇서 折衝中인 吉池總督府技師의 歸任을기다려 穀協臨時理事會를 開催하고 朝鮮側의態度를 決定하기로되엿다 朝鮮側으로서는 大阪側이 끗까지 反省치안는다면 斷乎朝鮮白米의 不賣로서 이에對抗할方針이라한다

鐵道枕木 三百萬個

百萬個가不足

朝鮮內官私鐵道의 明年度使用枕木의 豫想量은 大體로例年의 使用實績을보아서 約三百萬個程度로 보고잇는데 從來이需要枕木은 朝鮮內 產品만으로는 不足하야 內地로부터도 購入하는 現狀이어 어떠케든지 朝鮮內에서 自給할方針이나 約二百萬個는 朝鮮內에서 自給할可能性이 잇다하드라도 남어지 百萬個는 어찌할도리가업서서 鐵材와함께 木材에도 相當히頭痛하게되엿다

그래서 鐵道局保線課에서는 材質에따라 防腐劑를 注入하야 研究試驗을 거듭한 結果 朝鮮松의 防腐劑注入에 成功하엿다 그래서 枕木의壽命도 三十年쯤 使用할수잇는 確實性을 어든 成績을 내게되엿다

○東拓產業初配當 東拓產業會社(資本金五百萬圓)는 第二期決算總會를 經하야 七分의初配當을 決定하엿다

錦城鑛業認可

日本高周波重工業系로設立準備中인 錦城鑛業(資本金百萬圓)은 資金調整法에依하야 總督府에 認可申請中이던바 十一日附로서 認可되엿다 同社는 忠南錦城郡의重石鑛을 開發하려는것으로 創立總會는 今月下旬或은 來月上旬으로되리라고

忠南「트럭」을 朝運에서買收

朝鮮運送會社에서는今回忠南鳥致院公州間과大田忠州間의트럭輸送營業權을買收키로 大體交涉되어 近間增田自動車課長이 現地에 出張할터인데 營業所는 公州에두기로되리라고한다

今日의市勢 (十二日)

株式 續進後에 伸惱

前場强調 昨後場 續騰에 이어 今朝는 諸外國이 一齊히 對支援助拒絶함을 傳하엿스나 外電暴落、外交交涉結束等으로 依然한高價警戒人氣이어서 東新 鐘紡이모다 前日高인東新百十五圓五、鐘紡二百一十六圓四로 寄付後 東新六圓二 鐘紡七圓五로 에 續進이고 結局東新百三十五圓六、鐘紡二百二十七圓一로 强調大引

後場伸惱 後場은 東新百三十五圓四인二低 鐘紡二百二十六圓九인二低로 伸惱裡 寄付後 要方이모다 推移觀望하야 消極的이어서 一往一來를 거듭하다가 底堅大引

鐘紡의採算點 增資發表자 環境이惡化되엇슨때인만큼 도리어實際되어 二百圓大關門까지께어젓엇스나 最近二百二十圓乃至三十圓間으로 反撥되엿다 그러나採算으로보면 相當히割低이다 一般的으로는여러가지를 悲觀的으로보아이며 要컨대 大局上一段發展性을 獲得

子株六分利回	一六六圓
新權利六掛	七〇圓
實業權利	一五圓

合計二百五十圓인데 이것은現在環境으로는 最低의 採算點이라고보는사람이잇다

株價低落阻止 投資會社流產

取引員不協調

事變下의 株價動搖는 國際信用上에도 影響이미칠 念慮가 잇을뿐아니라 延하야는 事變의解決까지 遲延시킬 憂慮가 잇서 東株首腦部에서는 最者大日本產業振興會社의 創立을 計畫하엿스나 이것이 失敗에 歸하엿스므로 代案으로서 資本金一千萬圓程度의 低落阻止會社를 設立하려고 過般來 盡力하여왓스나 最近 株價도 安定되고 取引員側의 協調도成立되지안코金融界方面에도 難色이어서 드디어九日午後首腦部協議의 結果 右會社의 創立計畫을中止한것을 發表하엿다

國債平凡保合

【東京電話同盟】株式高도 何等刺戟을주지안코依然無味 平凡保合을繼續하야一回가 五錢少弱되엿슬뿐이다 內債는氣乘薄이나 米價債는 大阪의强調로 六分半五分半모두 一、二十錢少堅이엿다

一回四分 一〇、三六五 二十八年物 九、八二〇 米五分半 三六、〇〇〇

株

日蘇停戰協定으로 市勢는돌라 右便急騰되어 前者의 反撥量을바라고强調 ▲不安이八分은 解消되엇스나 同要方對時中이라는二分의 不安이 殘在 ▲例의 取引所株上場禁止問題는 贊否兩論이 對立激化 ▲池田、商相은 元來上場禁止論者이엇든만큼 株制가 强化되어저는 어떤 株會에 新規發行株는 上場禁止에 되는지 모른다는 不安은 今後에까지 [illegible]

米

昨今 當地市勢는 三四丁變動에 不過하야 今朝는 六十四錢의 一本調子로 四節은 賣買不成까지되엿다 ◆朝鮮은 依然 旱魃을 繼續하야 水田의 龜裂乃至 枯死의지경까지 이르럿슴에도 不拘하고 市勢는 容易히 昻騰하지못하고잇다 此는 仕手의 그自身이 警戒하는까닭 ▲그러면 雨를 需來하야 早害를 一消한다 할지라도 떨어지지못할 것은 相對性의原則 ◆何如間 市勢는 오른지도 떠러지지도 못하는것이大勢! 이러한 弱勢를 利用하라면 小規主義가 最良策!

颱風期의天候

遷設鹿兒島附近에서 進路를變하야 [illegible]

全혀東手無策

昨今當地先限은 三十二圓六十錢台에서 不伸不押으로 僅히三四丁變動에 不過하다 各自의仕手들은 朝鮮의 旱天을 買方의唯一한 强材로하야 守勢를하는 一方朝鮮의 一雨를 賣方은 期待하는 一場低落을 告할것이라하야도 한待期를하는中이다 果然降雨가잇을것인가? 又는 旱天을 어데로 繼續한다 假定하면 얼마나한程度의 暴騰을 示할것인가? 此는挽近保合時代의 唯一한 宿題가되어 그答案을 求하기難한 狀態에잇다 그러나 事變으로緊迫된 政策은 米價의 第二段對策을 加하려하는 此際이므로 仕方의그自身도 警戒하야 어떠한 機會에 어떠한新政策을 突然發表할지몰라서 無感히 買進하지 못하고 反映으로는 持米側이 絕對低價에 賣應치안코 高米價를 待機하는 此際에 無謀히 賣崩할수도업다고 하니 차라리 戰線을 縮少하야 二、三十丁範圍에서 勝負를決하는것이 事變下의 唯一한良策이 아닐가 하는商談이多하다

期米 搖之不動 膠着

前場膠着 今朝大阪地三十五圓六十五錢인四丁高寄付하고 當限은 三十圓九十六錢인二丁高 中限은 三十一圓〇一錢인一丁低로 先限은三十二圓六十四錢인 昨止同値으로寄付後 阪地二節六十七錢으로 八節六十四錢까지 反弛하엿스나 何等의影響이업시 四節無賣買 六節까지六十四錢이고 七節六十一錢 八節六十四錢이다 結局阪地 止六十一錢을보고 六十四錢에 釘付止하엿다

後場釘付 後場은 三十二圓六十三錢인 一丁低로 始寄한 後 二節六十一錢이엿스나 五節까지 六十四錢同價로 膠着이엿다

今日財界 十二日

◆米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	[illegible]	[illegible]
白米石米(仁川)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十錢)

	今日終止	比前日終止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正米 入注杜絕 不動

京城閑散 阪地에서 八分搗以上의 精米는 販賣禁止로因하야 白米의 移出이 全然杜絕되고 玄米도 當地는 丸仁의習通物이主로 豚芽米로는 適合하지안는 關係上 目前은 地場을除한外에는 去來할것이 업서 滿算의伸惱와함께 市中은 地場小口側에 當用必需買뿐으로 極度의 閑散場面이다 所持側은 無砂搗의原料로서 內地로부터의 照電이잇기를 期待하고잇다 ㊀穀良三等 三三、八〇 四等 三三、六〇 一等白米 一四、〇五

仁川不動 市中은 內地入注不振으로 全혀萎縮되고 阪地의 端境期를 지낫스나 消化困難說까지 擡頭하야 白米禁止로因하야 地場의在米는 一般은悲觀人氣에 덮여 今後의 稻白側의 對策과 內地로부터의 注文品如何가 問題視되어잇서 市勢도 不動이엿다 ㊀穀良三等 三三、八〇 四等 三三、六 ㊀銀坊三等 三三、〇〇 四等 三三、四 一等白米 一四、〇五 ㊀一四、〇〇

釜山下押 內地의 殘存米第一次發表는 意外로 增加함을 傳하야 今朝所持側은 軟化되엿스나 [illegible]

木浦付釘 市中은 現存米 第一次發表增加이나 人氣에는 아모런 衝動을줄수업고 內地의 全面的水害、朝鮮內는 旱魃의 兩現象을 示하야 漸次로 悲觀說이 擡頭하야 다만 移出에다가 期待를두고잇섯는데 地場은 依然한 內地入注不振으로 買氣는 자취를 감추어 市勢도 前價同樣으로 不動이엇다 ㊀銀坊三等 三三、四〇 四等 三三、六〇 一等白米 一三、七〇

群山伸惱 內地의天候는 [illegible] 一等白米 一三、五五

大邱不變 [illegible] 一等白米 一三、七六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illegible]

海外經濟 十二日

[illegible]

銀行券 十二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鋼油粕 麥粉

◆阪神鋼粕◆ ◆阪神鋼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主要株取組◆ ◆朝取短期◆ ◆算定代引日步◆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朝取短期賣買高◆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棉花 人絹 生絲 砂糖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十二日

[illegible]

京城 仁川 益康 金益證券

總督府許可 金銀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新產金銀鑛主所在地要許可番號 金化青 灰吹 底料金 引受

期米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販店